

글로벌 금융불안과 은행권 과제

2011. 12. 13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분성



보험 부문의 대응방안 및 과제

2011. 12. 13

진 익

보험연구원

발표를 시작하며 ...

...

So if we are subject to risks that we cannot even anticipate,
if we have built a world of **complexity and tight coupling**
where adding regulation only makes matters worse,
is there any more we can say other than "get used to it"?

...

"A Demon of Our Own Design"

by Richard Bookstaber

발표를 시작하며 ... : 보험산업 분석 시 고려사항

- 장기부채인 보험계약의 “공정가치” 발견이 용이하지 않음.
 - 보험계약 체결 후 매매가 용이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음.
 - 미래 현금흐름, 할인률, 위험률 등을 추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간 Consensus 형성이 어려움.
- 상당한 수준의 위험(미래 손실발생 가능성)이 장기간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
 - 이자율 및 위험률 관련 확률분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동할 수 있음.
 - 현재 적정하다고 인식되는 가격, 준비금, 요구자본 등이 사후적으로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될 여지 존재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다각적으로 제도화된 안전장치 존재
 - 가격산정, 준비금 적립, 요구자본 산정 시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규제감독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대표적인 위험요인, 위험전가 경로 등에서 타 금융업권과 차별성이 나타날 개연성 큼.
- 재무건전성 강화가 강조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나 산업발전 면에서 적지 않은 비용 수반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강화 비용 일부가 보수적 가격 및 환급금 설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 각종 안전장치 시 설계 시 보험회사별 차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면 산업의 역동성이 위축될 수 있음.

보고서 구성

I

보험산업 현황

II

보험산업 금융불안 감내여력

III

보험산업 대응전략 및 과제

보고서 구성

I

보험산업 현황

II

보험산업 금융불안 감내여력

III

보험산업 대응전략 및 과제

I. 보험산업 현황 : 1. 위험관리 강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보험산업 재무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① 가격규제, ② 준비금규제 개선, ③ 자기자본규제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음.

가격규제 개선

- 2000년,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 자유화 :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
- 2011년, Cash Flow 방식 도입 : 보다 다양한 위험요인을 고려한 가격산정 허용

준비금규제 개선

- 2000년, 표준책임준비금제도 도입 : 할인률, 위험률 등에 대해 보수적 기준 적용하도록 요구
- 2011년,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도입 : 현 시점에서 책임준비금 적정 규모 재평가

자기자본규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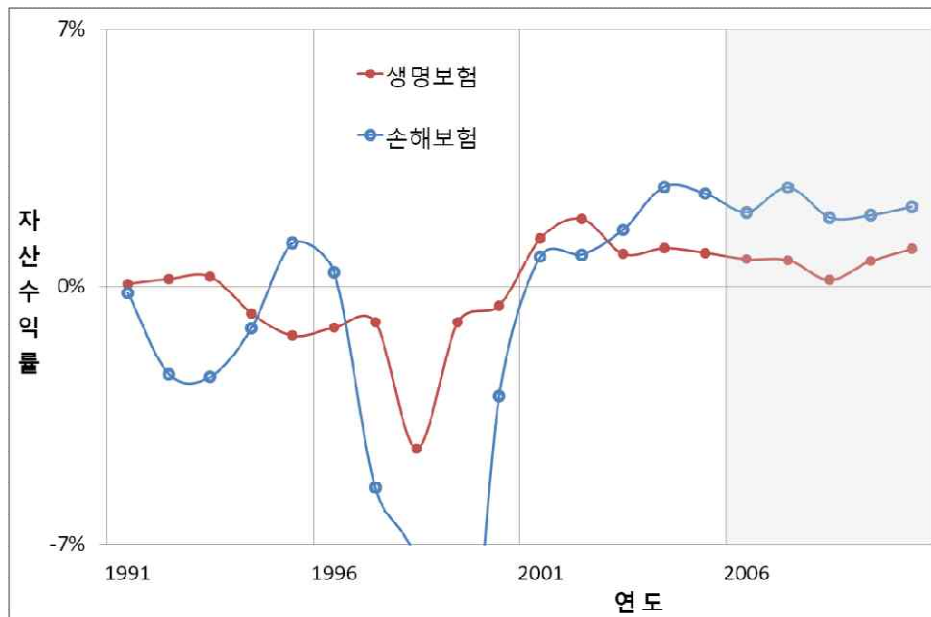
- 1999년, 지급여력확보기준(EU Solvency I) 도입 : 금액규제에서 비율규제로 전환
- 2010년, 위험기준자기자본(Risk Based Capital) 제도 의무화 : 리스크 유형별 위험액 산정

I. 보험산업 현황 : 2. 경영성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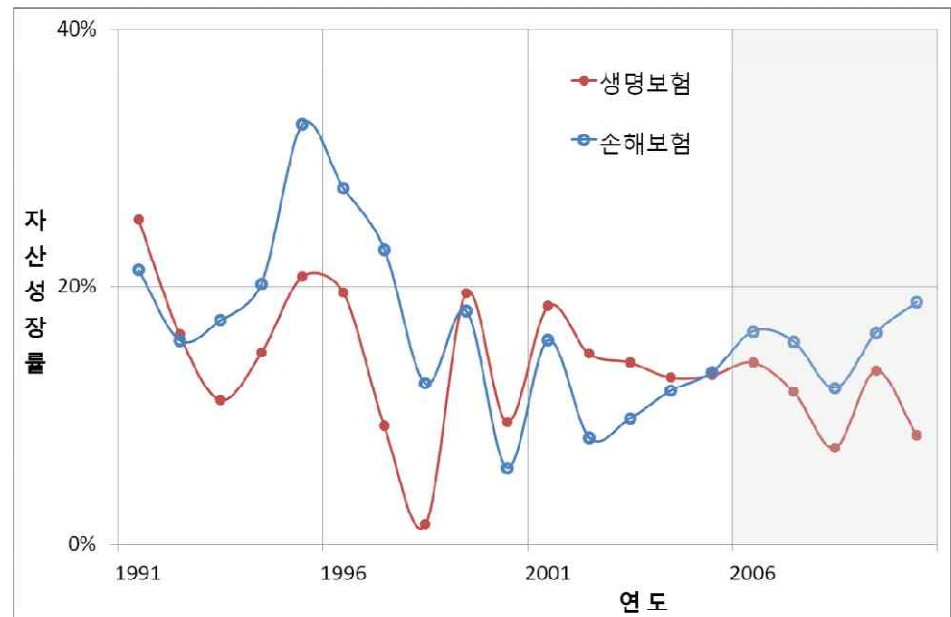
적극적인 위험노출 축소의 결과,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 확보

-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수익성 지표가 (+)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 금융투자성 서비스(변액, 저축성, 장기손해) 중심 상품구성 및 금리연동형 구조로 전환
 - 자산운용 면에서도 국공채 중심의 자산구성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용위험노출 최소화
- 재무건전성 유지 하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핵심역량 축적 필요

보험산업 수익성 최근 20년간 추이



보험산업 성장성 최근 20년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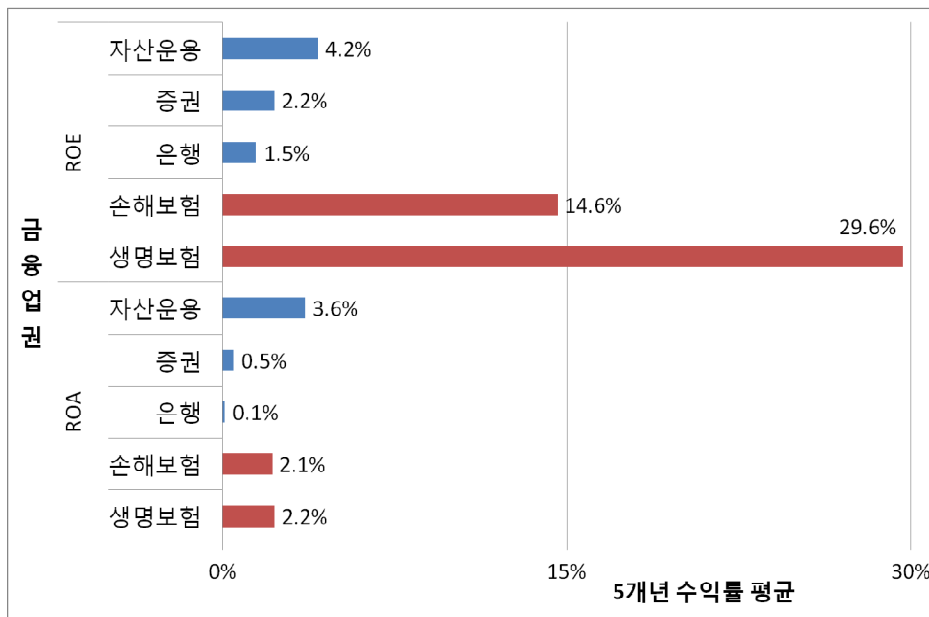


I. 보험산업 현황 : 3. 금융업권간 경영성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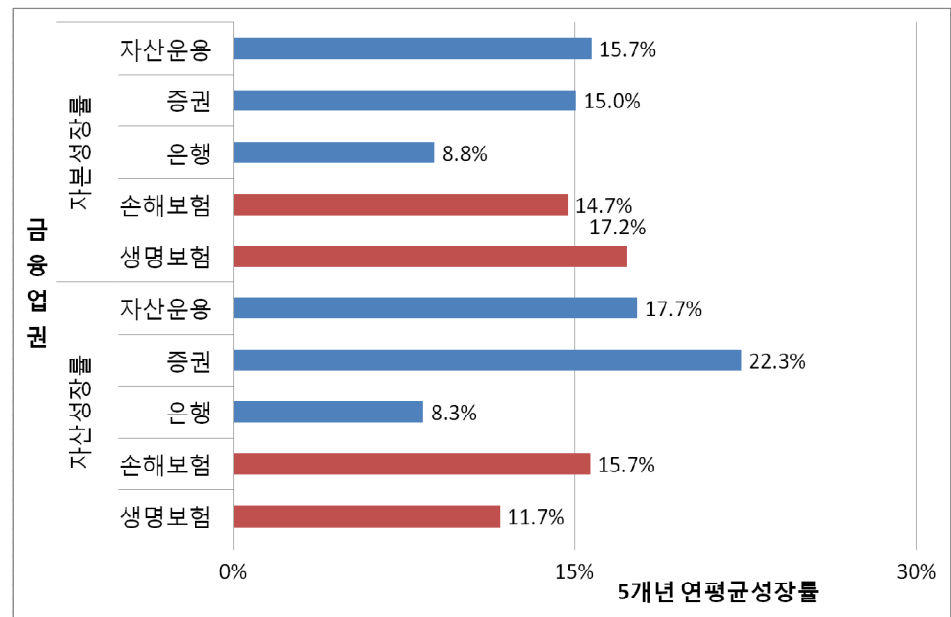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보험산업 경영성과가 타 금융업권 대비 양호한 상태

- 수익성 지표(자산수익률 및 자본수익률)를 볼 때, 보험산업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
 - 장기 부채(준비금) 보유에 따라 Leverage가 큰 관계로 지표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성장성 지표(자산성장률 및 자본성장률)를 보더라도 보험산업이 상대적으로 양호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순이익 유지와 위기대응을 위한 자본확충으로 자산 성장 지속

자산 및 자본 관련 수익률 5개년 평균



자산 및 자본 관련 5개년 연평균성장률



보고서 구성

I

보험산업 현황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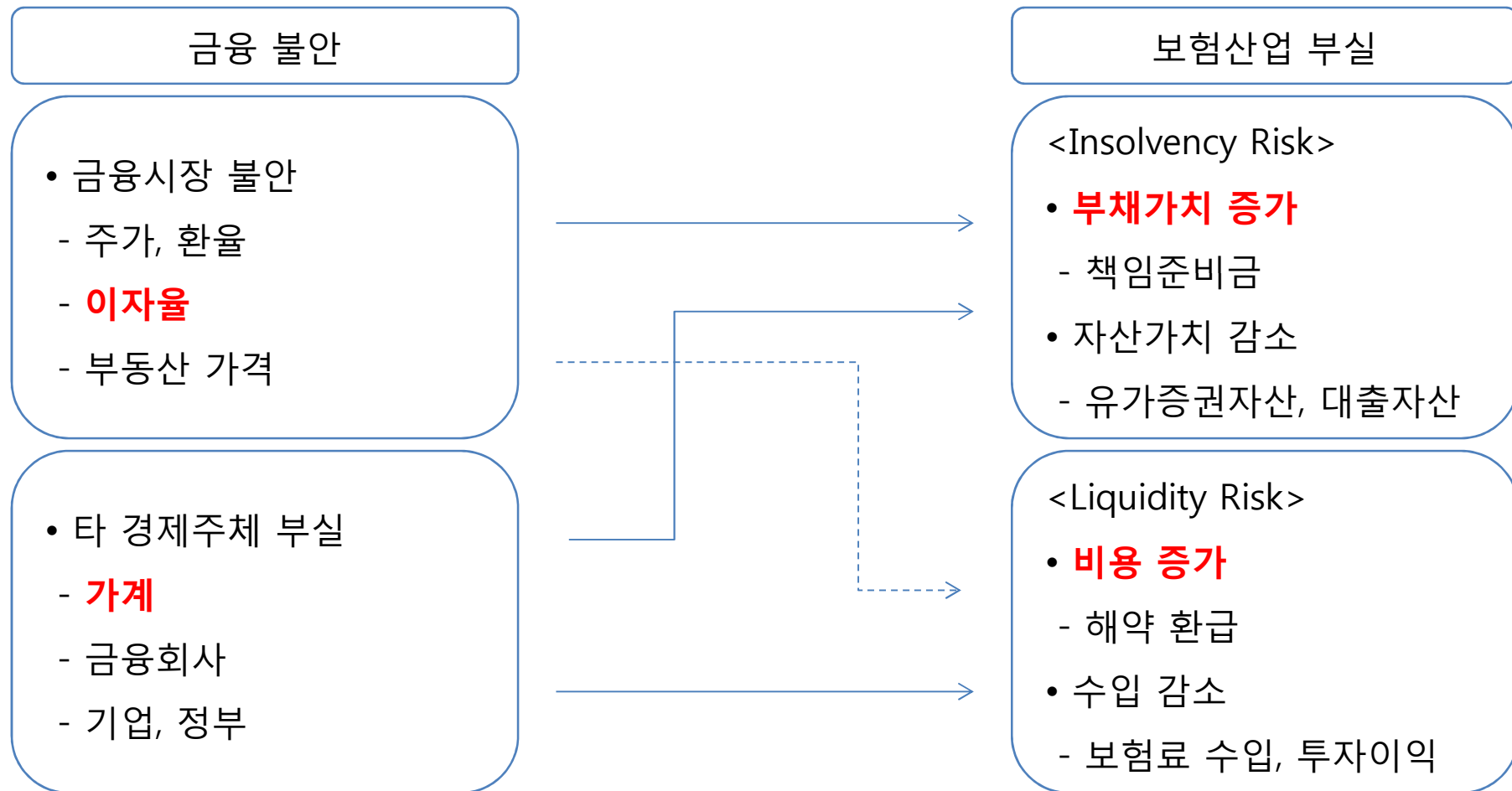
보험산업 금융불안 감내여력

III

보험산업 대응전략 및 과제

II. 보험산업 금융불안 감내여력

현재 금융불안에 따라 보험산업이 부실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① 이자율 하락에 따른 순자산가치 하락 위험, ② 가계부실에 따른 급격한 현금유출 위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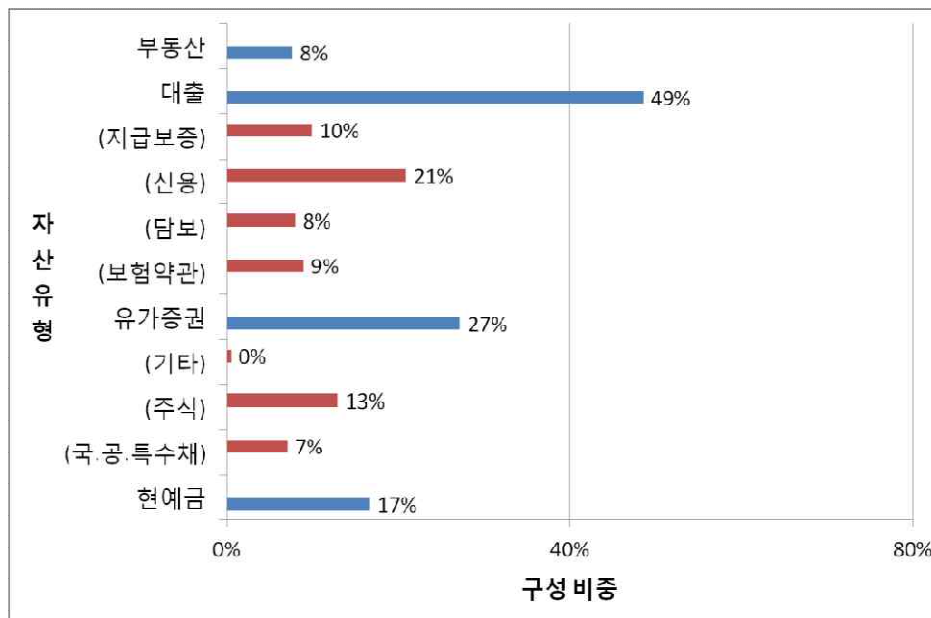


II. 보험산업 금융불안 감내 여력 : 1. Insolvency Risk : 1) 1996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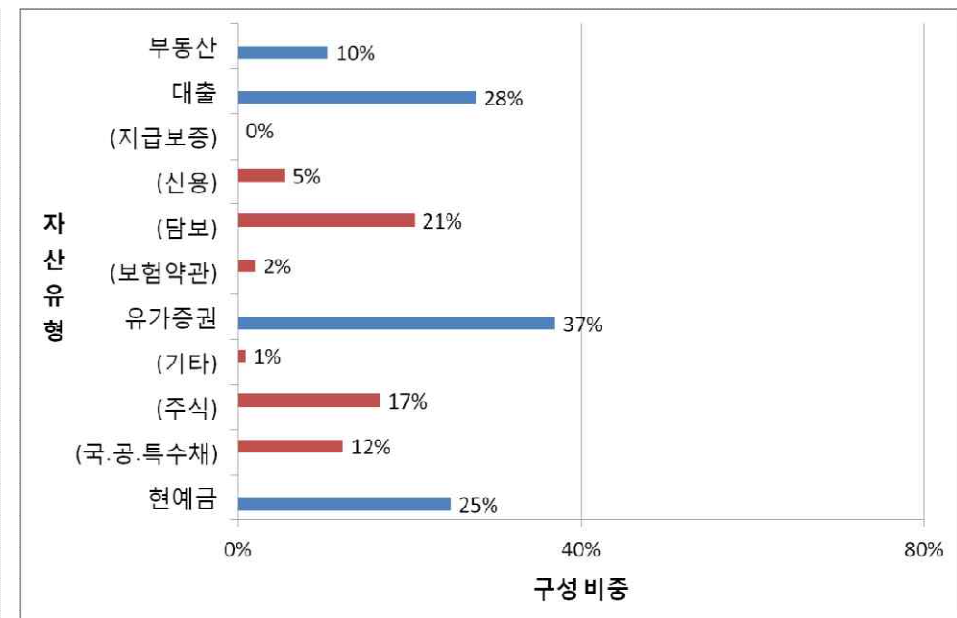
1997년 외환위기 시, 보유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Insolvency Risk 높은 상태였음.

- 전체 운용자산 중 대출자산 비중 높아 Credit Risk Exposure가 큰 상황이었음.
 - 1996년 기준 생명보험 신용대출 및 지급보증 비중이 약 31%, 기업대출 비중은 약 27%
- 유가증권 중 주식 비중이 높아 주가 관련 Market Risk Exposure도 컸던 상태
- 예금 비중도 상당한 수준으로 타 금융회사 부실이 전이되는 Contagion Risk에 노출

1996년 기준 생명보험 자산 구성



1996년 기준 손해보험 자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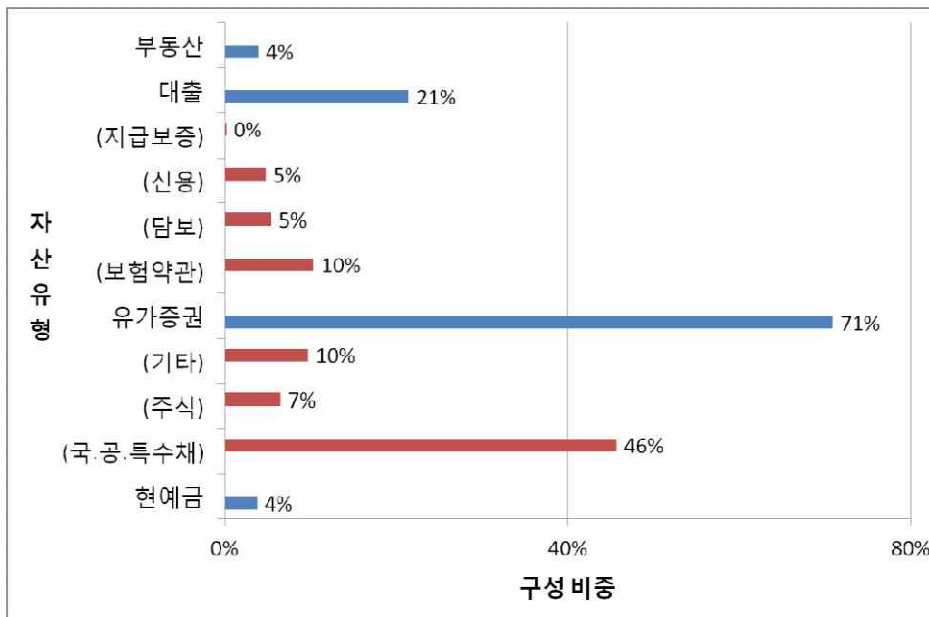


II. 보험산업 금융불안 감내 여력 : 1. Insolvency Risk : 2) 2010년 상황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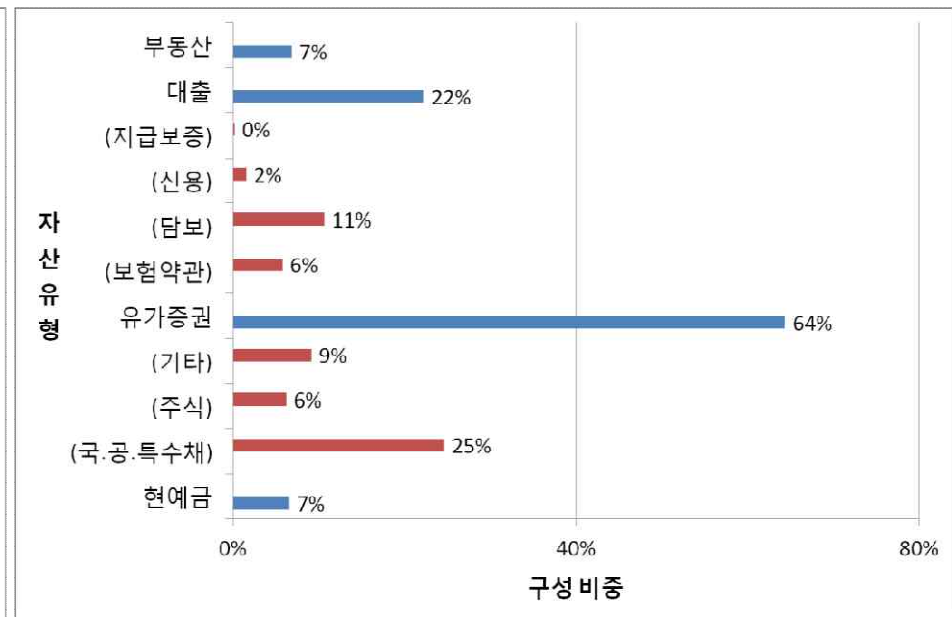
순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미실현 누적손실 규모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

- 잠재된 손실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Insolvency Risk 급증 가능
 - 이자율 관련 Market Risk Exposure 축소를 위해 자산·부채간 듀레이션 갭 축소 노력 지속
- 타 경제주체의 부실로 보험산업 자산가치가 하락할 Credit Risk Exposure는 크지 않음.
 - 대출자산 중 신용대출 및 지급보증 비중은 낮고 보험약관대출 비중이 높은 상태

2010년 기준 생명보험 자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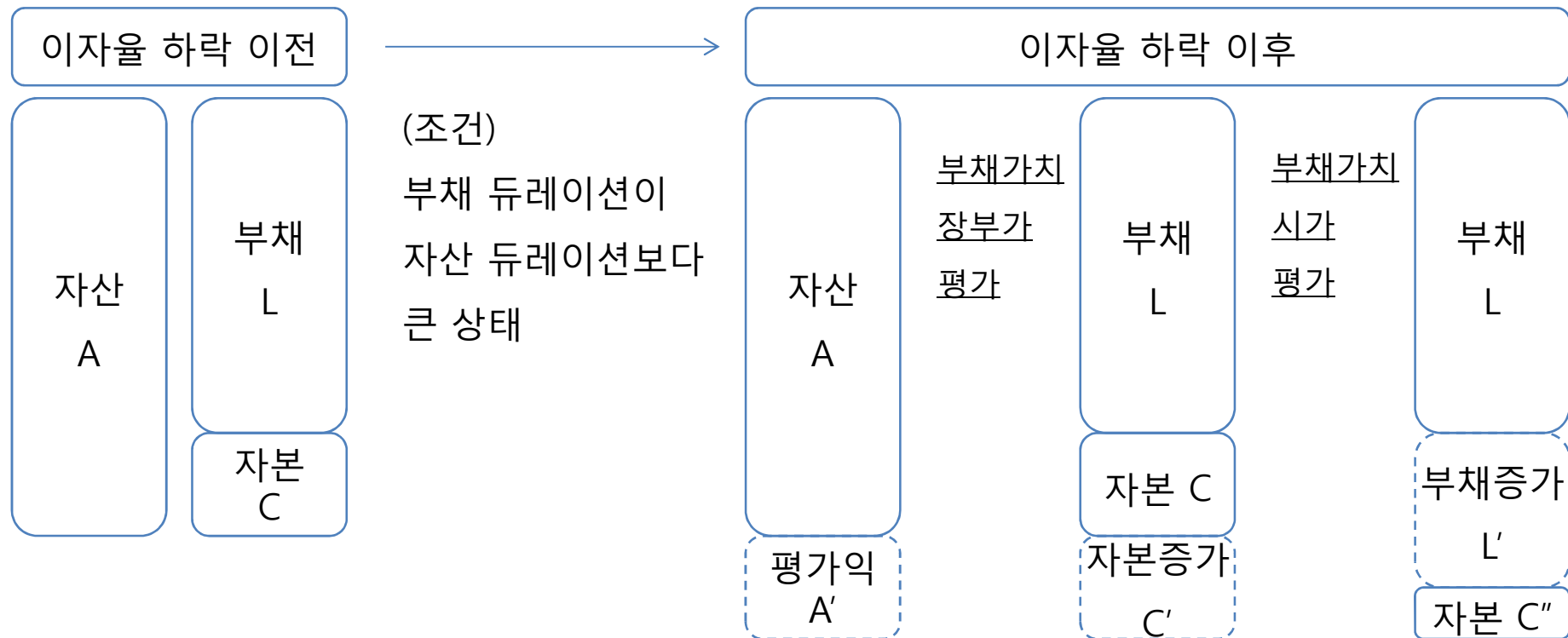
2010년 기준 손해보험 자산 구성



II. 보험산업 금융불안 감내 여력 : 1. Insolvency Risk : 2) 2010년 상황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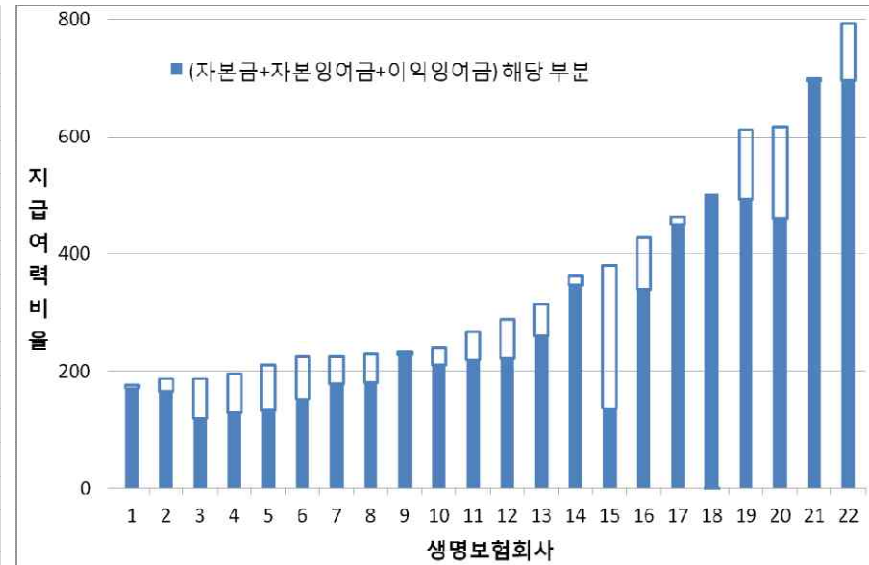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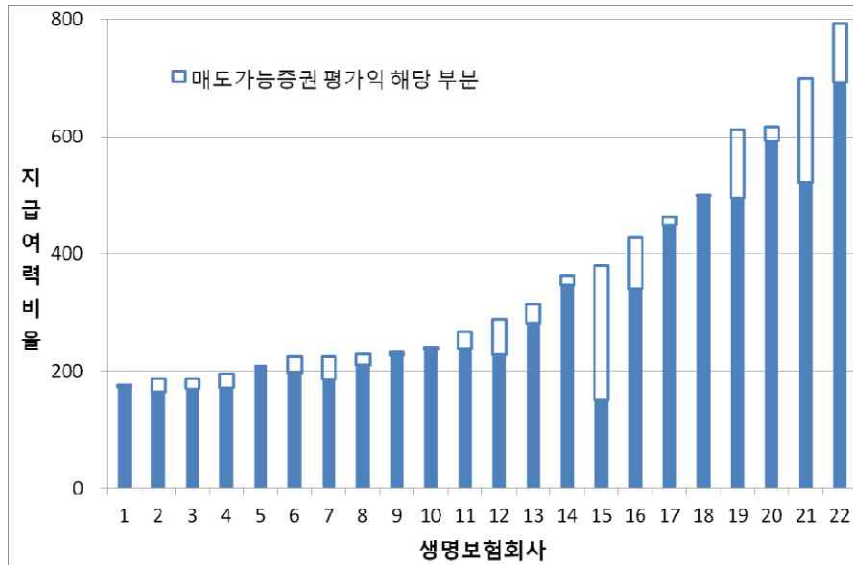
장기부채 시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Insolvency Risk 과소 추정 가능한 상태

-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큰 상황에서 이자율 하락으로 순자산가치 감소된 상태
 - 자산 평가익(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 규모와 듀레이션 갭을 이용 부채가치 증가 추론
 - 순자산가치 감소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자본여력은 공시된 수준보다 낮은 상태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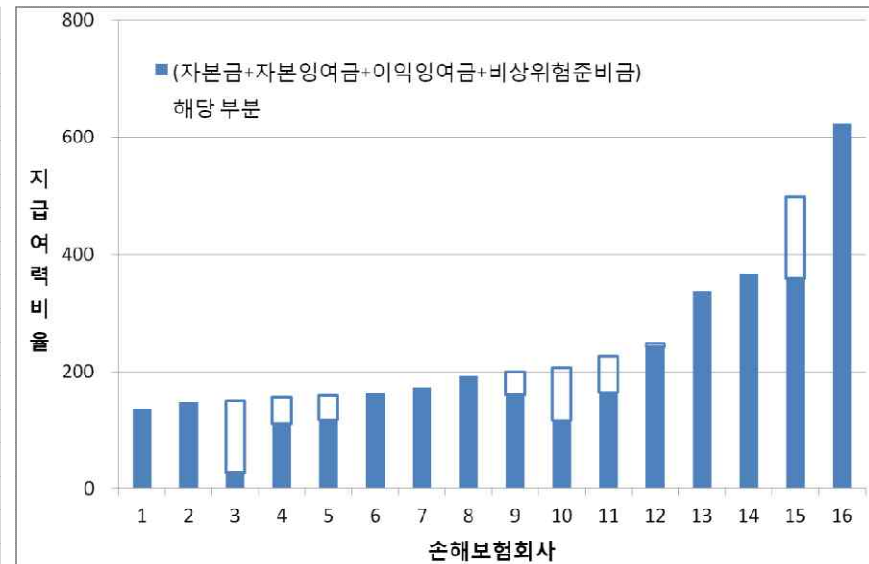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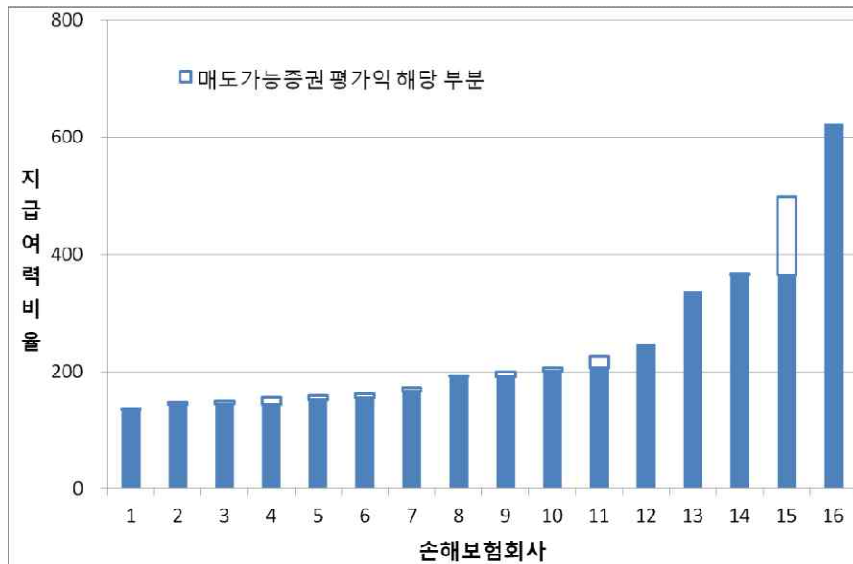


II. 보험산업 금융불안 감내 여력 : 1. Insolvency Risk : 2) 2010년 상황 ③

생명보험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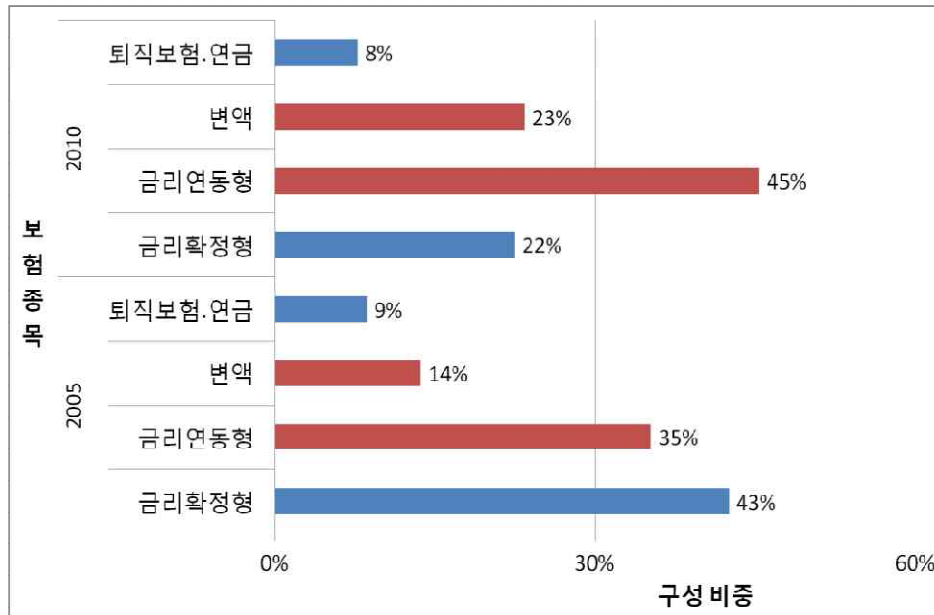


II. 보험산업 금융불안 감내여력 : 2. Liquidity Risk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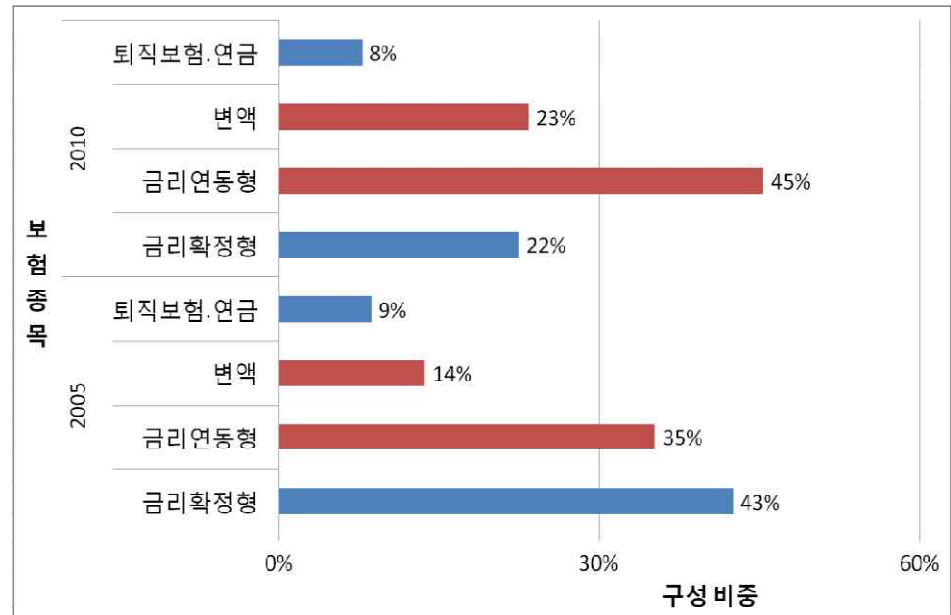
연금, 장기손해 등 장기 저축성 비중 확대로 Liquidity Risk Exposure 증가 추세

- 시장환경, 상품구성에 따라 "Insurance Run" 가능성, 경로 및 강도 등이 달라졌을 것으로 추론
 - 금리연동형 증가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이 시장환경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
 - 변액보험 가치는 금융시장 가격 변동에 연동된 만큼 "Fund Run" 발생 가능성 감시 필요
-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금융불안보다는 실물부문 위축과 보다 관련성 높음.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구성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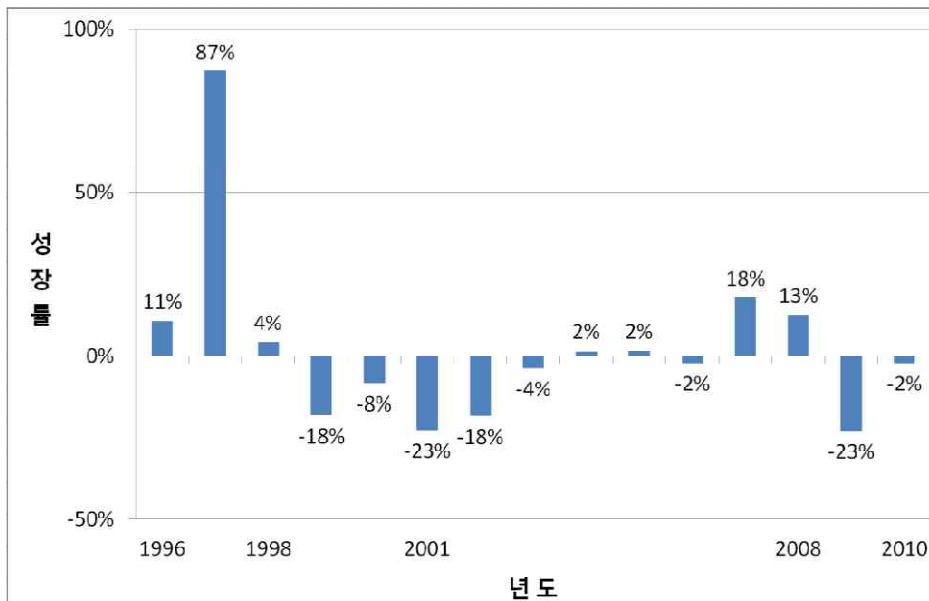


I. 보험산업 금융불안 감내여력 : 2. Liquidity Risk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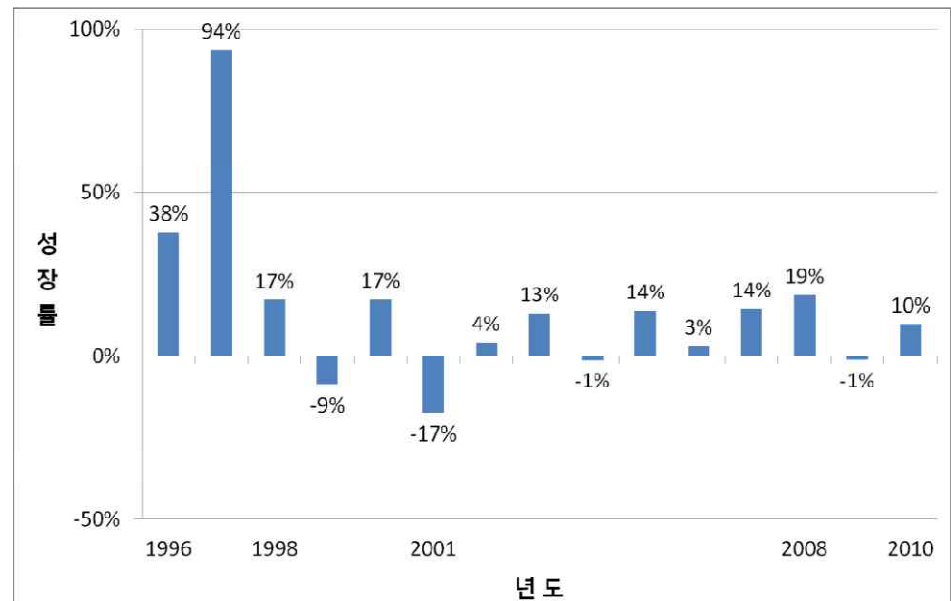
장기불황으로 가계 순자산 및 소득 감소 시 Liquidity Risk 수준 증가 예상

- 가계부채 부실이 본격화 되는 경우, 보험료 감소 및 해약 증가 가능성 높아질 수 있음.
 - 실물부문이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위축되면 "Insurance Run" 발생 가능
- 다만, 최저보증, 해약공제, 세제혜택 등은 "Insurance Run" 발생을 억제하는 buffer로 작용
 - 향후 이러한 buffer가 축소되어갈 경우, Liquidity Risk 면에서의 영향에 대해 검토 필요

생명보험 효력상실·해약환급금 증가율



손해보험 장기저축성보험 환급금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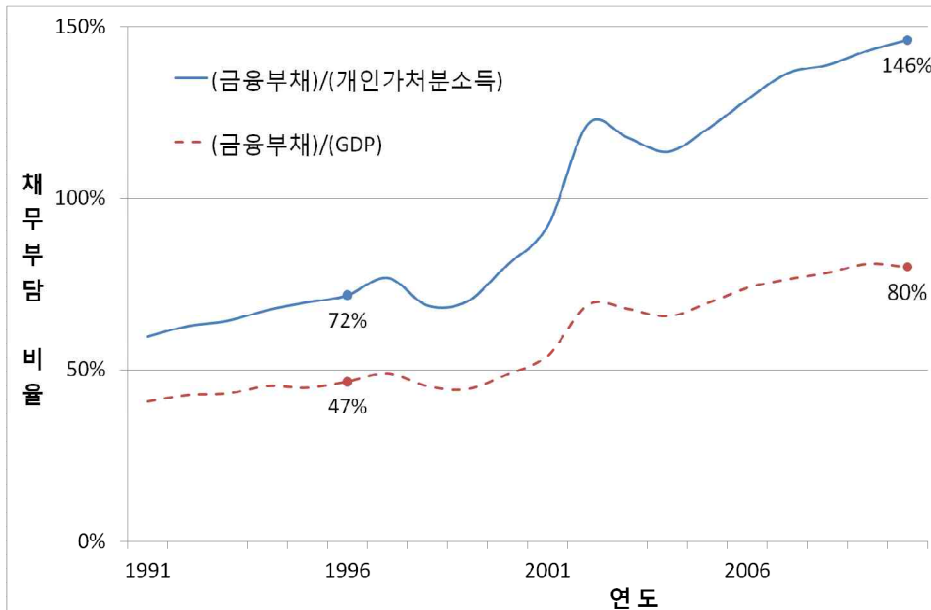


II. 보험산업 금융불안 감내여력 : 2. Liquidity Risk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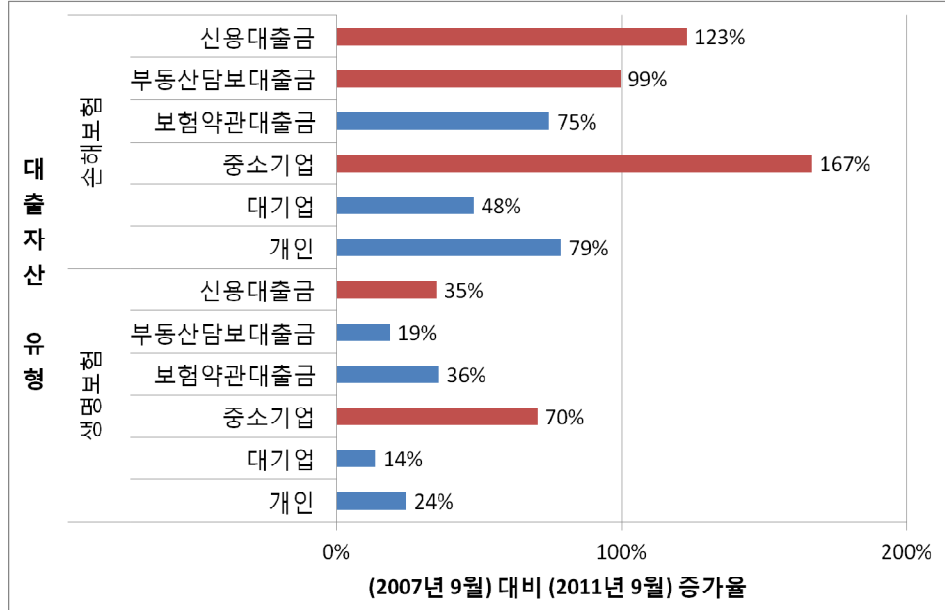
최근 빠르게 증가한 신용 및 부동산담보 대출 등에 대한 감시 강화 필요

- 현재 가계 채무부담 수준이 높은 상태로 가계의 추가적인 손실 감내여력이 크지 않을 것
 - 최근 신용대출 증가율(손보 123%, 생보 35%)과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손보 99%) 높은 상태
- 가계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보험산업에 대한 충격도 상당히 클 것
 - 가계의 행태변화에 따라 결정될 불안심리 확산 여부 및 그 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움.

가계 채무부담 추이



가계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규모



보고서 구성

I

보험산업 현황

II

보험산업 금융불안 감내여력

III

보험산업 대응전략 및 과제

III. 보험산업 대응전략 및 과제 : 1. 기본 방향

향후 보험산업이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선과제로서, ① 감독기준 국제적 정합성 제고, ② 금융소비자 만족 제고, ③ 시장 가격조정기능 제고 등을 검토

감독기준 국제적 정합성 제고

- <감독회계 기준> 적립된 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및 부채 "공정가치" 평가 기준
- <재무건전성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여력비율 산정 기준

금융소비자 만족 제고

- <해약환급금 제도> 중도해약 시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최소 수준 기준
- <수수료 지급체계> 판매 후 유지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수수료 지급체계

시장 가격조정기능 제고

- <가격 간접규제> 역량축적 통한 보험료율 인하를 유인할 수 있는 위험률 규제 기준

III. 보험산업 대응전략 및 과제 : 2. 감독기준 국제적 정합성 제고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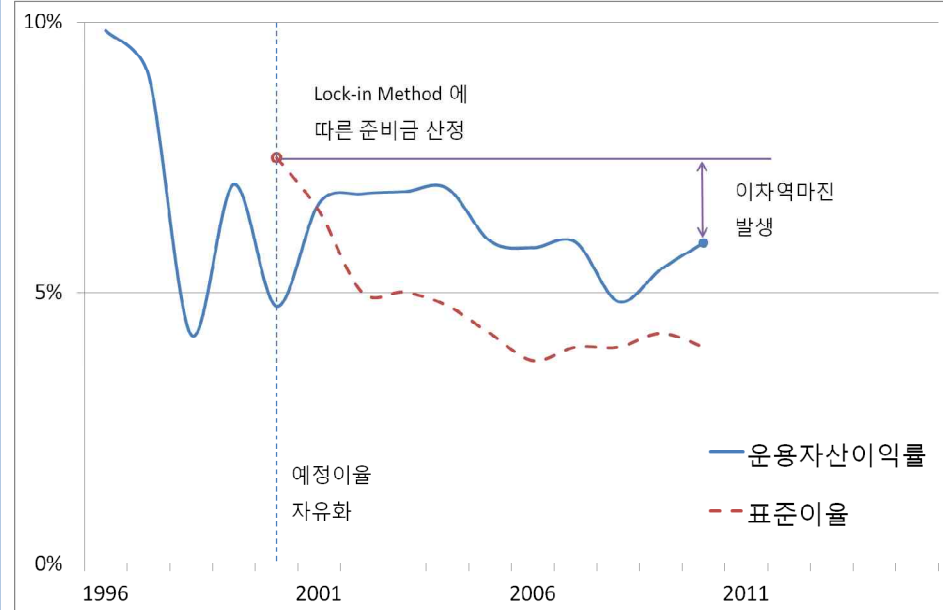
시장이자율 변화 영향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금 산정 기준 개선

- 현행 준비금 적립 기준은 "Lock-in method"(발행연도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Lock-in method"는 계약체결 시점에 약정된 이자율을 계약 종료 시까지 그대로 적용
 - "Lock-out method"(평가연도 방식)은 시장이자율 변동을 보유계약 부채 평가에도 반영
- 현재 준비금 적립 수준은 "공정가치"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을 것으로 추론됨.

보험료적립금 산정 기준 (표준책임준비금제도)

-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 ① 보험료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적립한다.
 - 1. 표준이율, 2. 표준위험률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기초율은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기초율을 전 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한다.
 다만,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적립부분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리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다.

이자역마진 발생 가능성



III. 보험산업 대응전략 및 과제 : 2. 감독기준 국제적 정합성 제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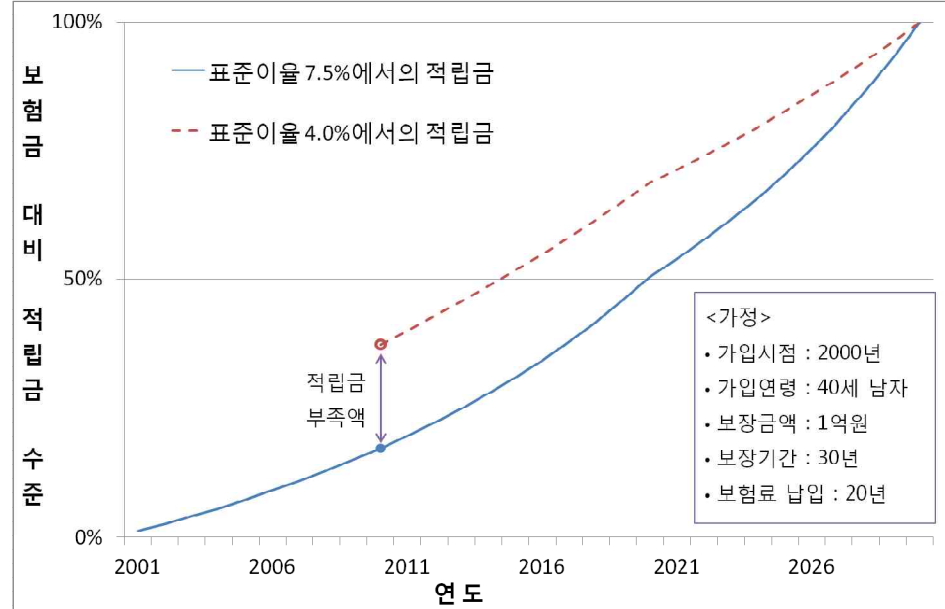
부채 시가평가 선제적 대응과 일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부채 적정성 평가 실행

- IFRS Phase II 부채 시가평가 도입에 따른 충격을 Smoothing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 필요
 - 할인율로서 운용자산이익률 대신 무위험이자율 사용이 요구될 경우 일시적 충격이 클 것
- 준비금 적정성 평가를 통해 준비금 과소 적립 상황을 파악하고 점진적 이행계획 필요
 - 보험료결손제도가 존재하였으나 기준이 느슨하여 실제 추가 적립된 준비금은 미미한 상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기준

-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2
- ① 보험회사는 제6-11조에 의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이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 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 ②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보험업감독규정세칙 제4-1조의3, <별표 26>

준비금 과소 적립 가능성 예시



III. 보험산업 대응전략 및 과제 : 2. 감독기준 국제적 정합성 제고 ③

이자율 변동에 따른 순자산가치 증감 영향 반영 위한 자기자본 산정 기준 개선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0%를 보험회사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 개선 바람직
 - 유럽 Solvency II는 **부채가치 시가평가** 하에서 자산 평가손익을 자기자본에 포함
 - 미국 RBC는 준비금 증가 부분을 "Interested Maintenance Reserves"로 추가 적립
 - 은행 감독규정에서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5%만 보완자본으로 인정

보험회사 지급여력금액 산정 기준

-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
- 영 제65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합산항목
 - 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타.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과 제6-11조의2에 의해 추가로 적립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
 - 거.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은행 자기자본 산정 기준

- 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26조 제2항, <별표 1>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기본자본** 해당 부분
 - 외환차이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보완자본** 해당 부분
 -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45%**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 45%
 -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7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공제항목** 해당 부분
 -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III. 보험산업 대응전략 및 과제 : 2. 감독기준 국제적 정합성 제고 ④

요구자본 산정 관련 표준모형 개선 및 내부모형 활용 확대

- 미국 RBC 기준을 참조하여, 국내 기준에도 요구자본 산정 시 계열사·자회사 리스크 반영
 - 사후적 규제인 RBC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사전적 자산운용규제 지속적 완화 필요
- 표준모형 적용이 곤란한 리스크 유형 및 보험종목에 대해 내부모형 사용을 의무화
 - 시나리오분석이 요구되는 변액보험에 대해 내부모형 사용을 의무화 한 미국 사례 참조 가능

우리나라 RBC와 미국 RBC 비교

위험액 유형	미국 RBC		국내 RBC	
	생명 보험	손해 보험	생명 보험	손해 보험
시장, 신용 보험, 운영	○	○	○	○
금리	○		○	
계열사, 자회사	○	○		

내부모형 도입방안 (김해식 외, 2010)

- 도입방식 관련 원칙
 - 규제차익을 위한 선택적 내부모형 사용 제한
 - **표준모형 사각지대를 내부모형으로 보완**
- 준비 단계 과제
 - 표준모형 현실화 통한 내부모형 선택유인 제고
 - 데이터 및 문서화 준비, 기업문화 개선
 - 계량영향분석 토대로 가이드라인 마련
- 시행 단계 과제
 -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역량 제고**

III. 보험산업 대응전략 및 과제 : 3. 금융소비자 만족 제고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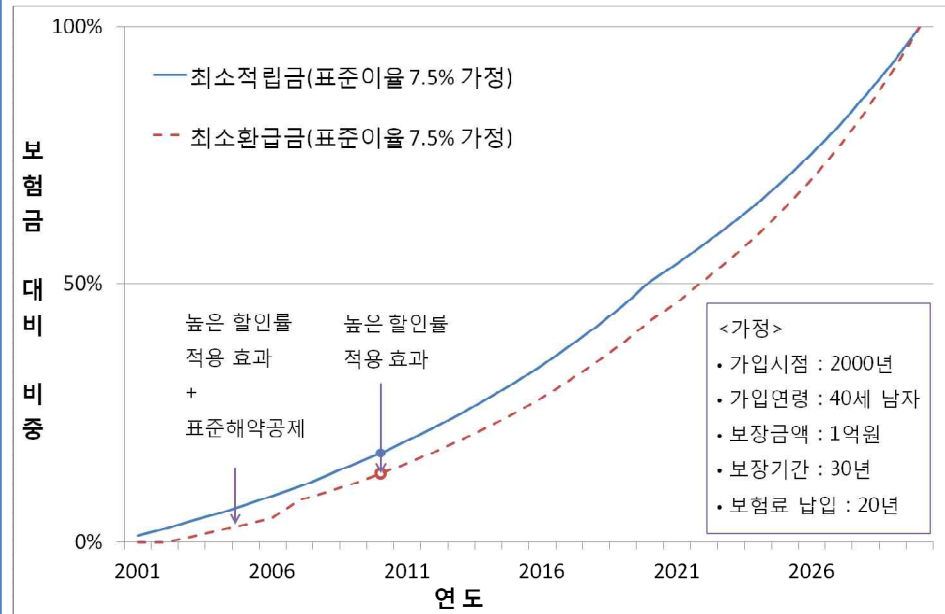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환급금 제도 개선 통한 환급금 최소 수준 보호

- 현행 기준에서는 환급금이 동일 시점의 보험계약 "공정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 보험회사가 준비금을 과소 적립한 상태인 경우, 해약을 유도할 유인 존재
- 호주, 미국 등의 해외사례 참조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금액 하한 규정
 - 저축성보험의 경우, " $\max[\text{법규 상 최저해약환급금, 적립금}]$ "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가능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 (표준해약환급금제도)

-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 해약환급금 최저 수준 규정
- 표준해약환급금 산출 방식
 -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 차감**
 - 해약공제 기간은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 최대 7년
 - **보험료적립금 산정 시 표준이율의 125% 적용**
- 해약환급금이 보험계약 "공정가치"보다 작을 가능성
 - 계약 체결 후 7년 이내 해약공제 발생
 - 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함에 따른 환급금 감소

해약환급금과 적립금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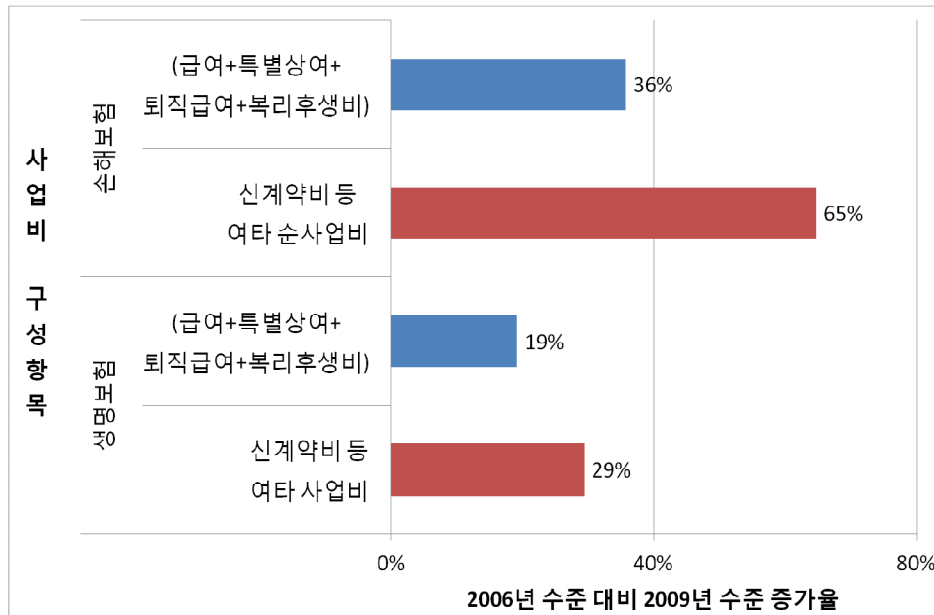


III. 보험산업 대응전략 및 과제 : 3. 금융소비자 만족 제고 ②

금융소비자 만족 제고 위해 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통한 판매 후 유지서비스 강화

- 불완전판매 축소, 타 금융업권 유사상품 대비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수수료 분급 유도
 - 보험가입 목적, 채널 역할, 상품별(보장성 vs. 저축성) 특성 등에 따라 수수료 지급체계 차별화
 - 신계약 체결을 유인하는 판매수수료 중심에서 벗어나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 이원화
 - 보험가입 목적, 납입방법 등에 따른 차별성을 반영하여 수수료 부과 기준 다변화

사업비 구성 항목별 증가율



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방향 (안철경·이경희, 2011)

구분	현행	개선방향
상품구분	보장성과 저축성에 단일 수수료 체계	보장성과 저축성 구분 수수료 체계 차별화
구성	단일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 로 이원화
부과기준	보험료 기준	보험료, 적립금 및 혼합 기준

III. 보험산업 대응전략 및 과제 : 4. 시장 가격조정기능 제고

역량축적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험률 규제 기준 개선

- 경험위험률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인하되나 준비금 수준은 유지되어 영업이익 축소 가능
 - 오히려 경험위험률이 높은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할 가능성 존재
- 보험료 산출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의 적용 관련 보험회사별 자율성 확대
 -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신고상품의 보험료를 심사, 검사 제재 시 입증이 쉽지 않은 상태

보험료적립금 산정 시 표준위험률 기준

- 보험업감독규정세칙 제4-4조, <별표 23>
 - 책임준비금 산출 시 보수적인 표준위험률을 적용
안정적인 보험금 자원 확보
- 현재 표준위험률 산정방식
 - 전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평균에 추정오차에 따른 변동성을 감안한 안전할증을 부가
 - **모든 보험회사에 동일한 표준위험률 적용**
- 개선방향
 - 보험회사별 표준위험률 산출

경험위험률 우선 적용 원칙

- 관련 규정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1> (기초서류 작성기준), 4. 보험료 및 책임산출방법서의 작성기준, 나."
 - 보험료 산출 시 경험위험률 우선 적용 원칙 규정
- 개선방향
 -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시장 자율의 가격조정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경험위험률 우선 적용 원칙 완화
 - 보험료를 간접규제 완화, 사후적 규제감독으로 전환

발표를 마치며...

...

In financial markets,

everybody doing the same thing is

the classic recipe for a bubble and inevitable bust.

...

"Recipe for Disaster: The Formula That Killed Wall Street"

by Felix Salmon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 금융감독 유관분야 학술심포지엄

자본시장 부문의 대응방안 및 과제

2011. 12. 13

연 태 훈

〈목차〉



I. 금융환경 변화

II. 2012년 시장 및 산업 전망

1. 시장 전망
2. 산업 전망

III.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제

〈목차〉



I. 금융환경 변화

II. 2012년 시장 및 산업 전망

1. 시장 전망
2. 산업 전망

III.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제

2012년도의 대내외 경제환경



부정적 요인

긍정적 요인

대외 경제 환경

- 유럽위기의 확산 우려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 선진국 경기둔화 여파로 신흥국 성장률 하락

- 정책대응을 통한 유럽 재정위기 관련 불확실성 해소
-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및 신용위험 완화
- 국제 안전자산 선호경향의 완화

대내 경제 환경

- 전반적 경제 성장률 둔화
- 비우량 · 위험자산 기피현상 지속

- 하반기 경제 완만한 성장세 회복
- 인플레이 압력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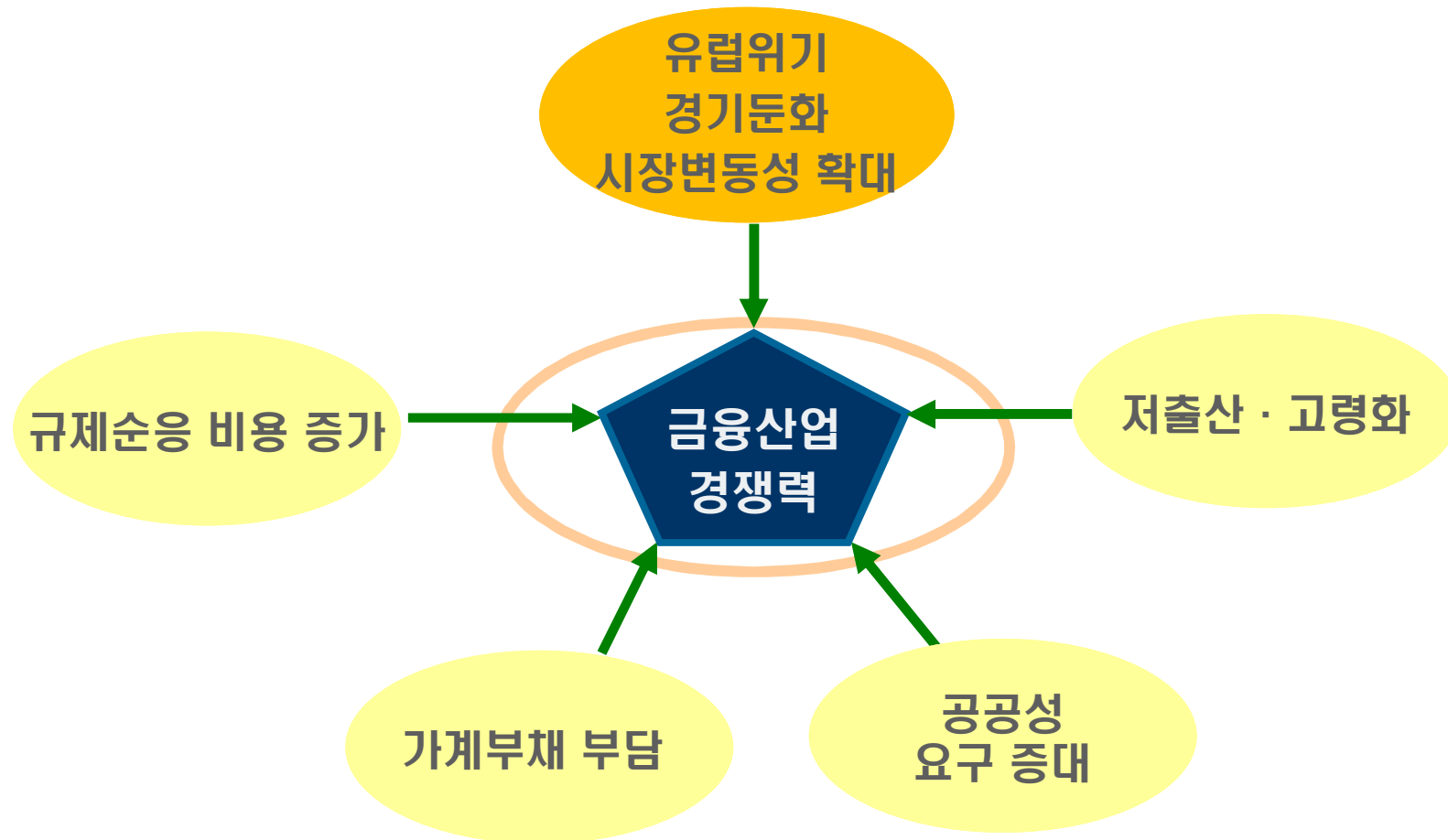
2012. 1

2012. 12

금융환경: 비용요인



대내외 불안요인 지속되는 가운데 규제와 금융회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강화되고 있어 산업경쟁력을 위협



금융환경: 비용요인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에 직면하고 있음

경기둔화 시장변동성 확대

- 외화부문 유동성리스크 증대
- 기업의 자금여력 저하, 부동산경기회복 지연, 가계의 상환능력 저하
- 안전자산 선호 강화,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심화, 시장리스크 증대

규제순응 비용 증가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자본차익과세 도입에 대한 논의

저출산 · 고령화

- 저성장 경제로의 진입
- 연기금 투자규모의 급증에 따른 편중현상

가계부채 부담

- 가계영업 제약으로 금융회사의 성장성 · 수익성 제약
-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증대

공공성 요구

- 금융회사 수익창출활동에 대한 반시장적 정서
- 상업성과의 조화 필요성 증대

금융환경: 기회요인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 혁신 동력을 확보하고자 시도
 - 법 도입의 당초 취지인 경쟁촉진을 통한 혁신적 시장변화 유도로의 회귀
 - 금융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 논의 등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의 수용

자본시장법 기본 취지(07년)

-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
- 모험자본(risk capital)을 공급하여, 신성장기업 등에 대한 자금 중개 지원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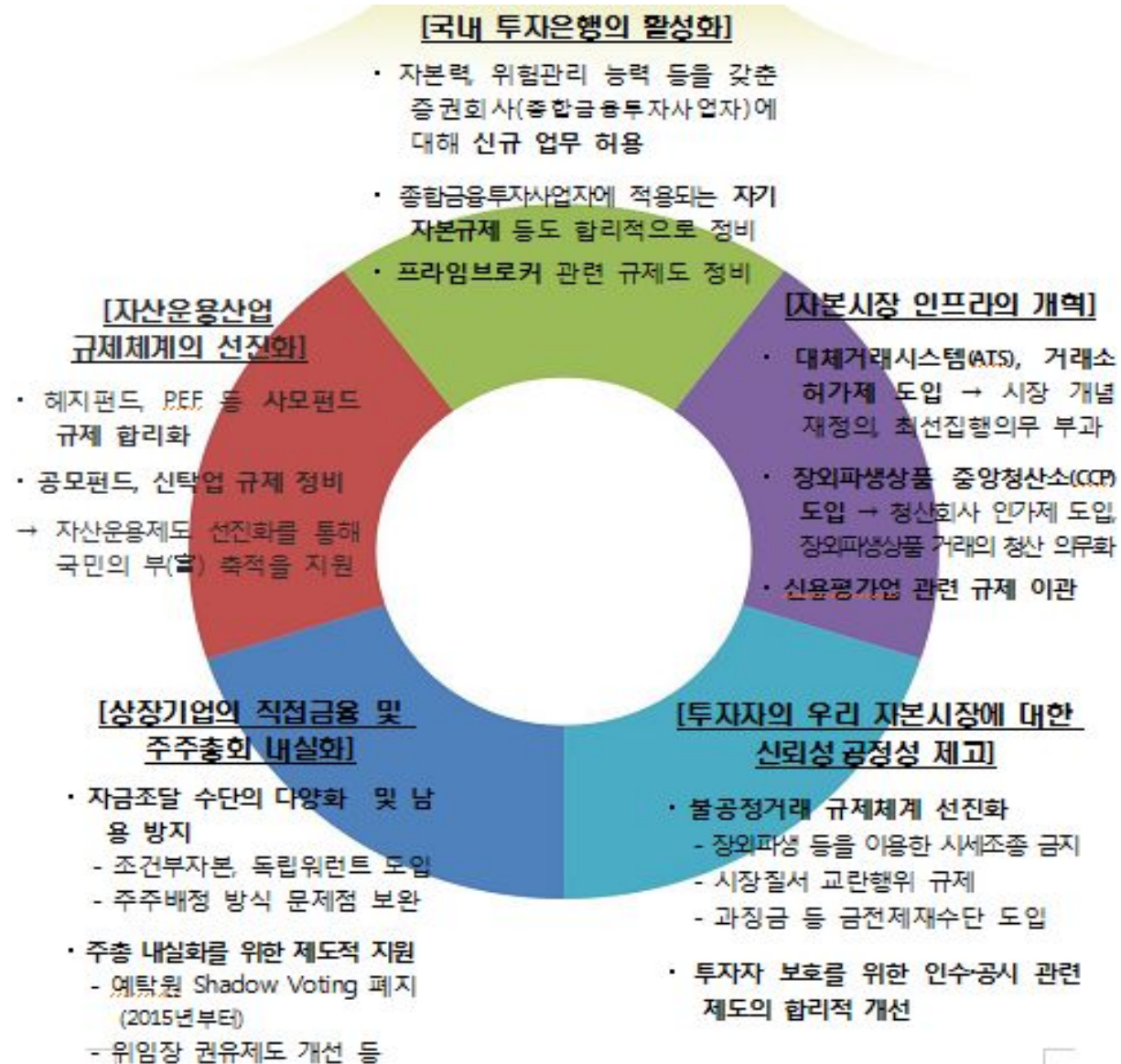
- 금융투자회사들의 소극적 투자
- 정부의 금융안정 위주의 정책

자본시장법 개정 효과

- 선진 투자은행의 출현 등 시장변화 재개
- 금융규제 강화·국제 공조 등 국제 금융질서 반영

- 자본시장법 내년도 개정 추진 중
- 시행령·규정은 하반기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개요



자본시장법 개정의 의의



자발적 구조개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개정을 통해 혁신의 돌파구를 모색

- 자본시장법의 당초 취지: 경쟁촉진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의 유도
- 증권업계의 경쟁기반 미흡으로 자본시장 구조변화 유도에 실패
 - 위험부담 유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구조적 변화 도출 실패
 - 단순업무 수익, 계열사 거래 의존도, 규모에 따른 차별화 부재
- 시장충격 등을 통해 변화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시장구조의 변화 선도 필요
- 개정안은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요한 개선 내용들을 담고 있어 향후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한 논의 활성화가 바람직
 - 자본시장을 통한 효율적 자금조달 · 분배를 위해 투자은행 서비스 고도화 필요
 - 이미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해외의 다양한 헤지펀드 자금들이 활동
- 불투명한 세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환경의 선제적 정비 필요
 - 세계경제 회복기 진입시, 우리 경제가 보다 빠르고 견조한 성장세를 영위하기 위해 활성화된 직접금융시장이 필요

자본시장법 개정의 기대효과



- 그간 소극적으로 취급되고 있던 증권인의 인수 및 상장, M&A 자문, 자기자본투자, 프라임브로커 등 투자은행 업무 고도화
 - 발행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곳에 직접적으로 위험자본을 공급해줌으로써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와의 괴리를 좁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헤지펀드 도입은 유통시장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금융시장 유동성 증가 및 효율성 향상
 - 효율적 투자기회 확대 및 위험분산 가능성의 증가를 통해 경제적 효용 유발
 - 선진 금융기법의 개발 및 축적 촉진
 - 활동주의(activist)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기업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
- ATS 도입에 따른 거래시스템 간 경쟁 심화로 유통시장 효율성 제고, 거래비용 절감, 다양한 니즈 충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
 - 일부 ATS의 정규 거래소 전환은 거래소 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기폭제로 기능
- 그 외, 각종 투자자보호 강화 및 불공정거래 규제 정비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목차〉



I. 금융환경 변화

II. 2012년 시장 및 산업 전망

1. 시장 전망
2. 산업 전망

III.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제

〈목차〉



I. 금융환경 변화

II. 2012년 시장 및 산업 전망

1. 시장 전망

2. 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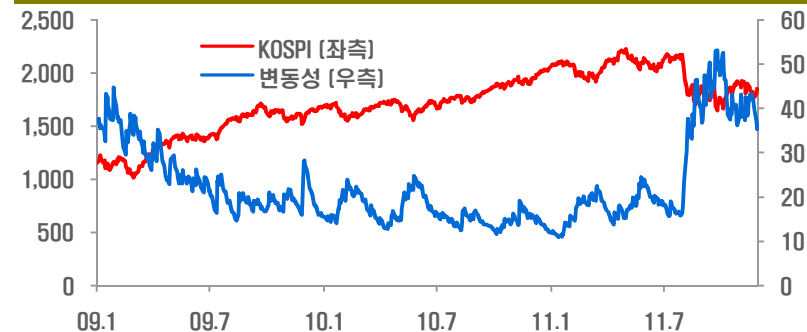
III.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제

2011년의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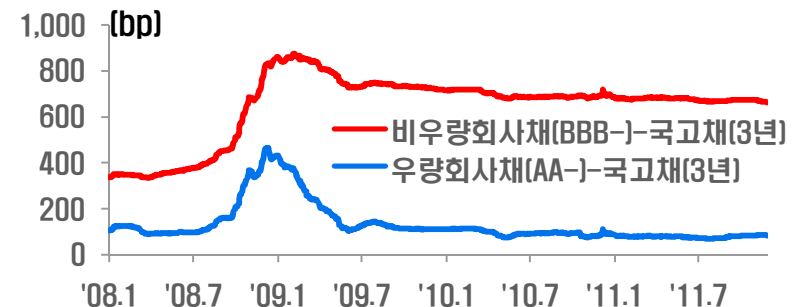
올해 금융시장은 해외악재의 영향으로 상고하저를 시현

- 상반기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추가 성장 가능성이 제기되던 상황
- 8월 이후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유럽 재정위기 확대 등 해외악재로 급속 냉각
 - 상반기의 안정적 주식시장은 8월 이후 외국인 매도를 중심으로 급락세로 반전
 - 아직까지 주식시장에서는 높은 변동성이 지속
 - 국고채 · 우량회사채에 대한 수요 증가와 달리 비우량회사채 시장은 침체 지속

주가지수 추이



신용 스프레드 추이



2012년도 국내경제 전망



경제성장률은 올해(3.9%) 보다 낮은 3.7% 수준을 기록할 전망

- 글로벌 재정위기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올해보다 큰 폭 증가는 어려운 상황
- 하반기에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성장률이 상승하는 **상저하고** 모습 예상
 - 상반기중 성장률 둔화,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 등 어려움 지속
 - 하반기 들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 글로벌 불안요인 심화에 따른 경기급락 등 하방위험도 상존

경제성장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10	2011	2012
GDP	6.2	3.9	3.7
최종 소비지출	3.9	2.6	2.9
[민 간]	4.1	2.6	2.7
총수출	14.5	10.8	9.9
총수입	16.9	9.7	9.1

주: 2011년 하반기 이후는 KIF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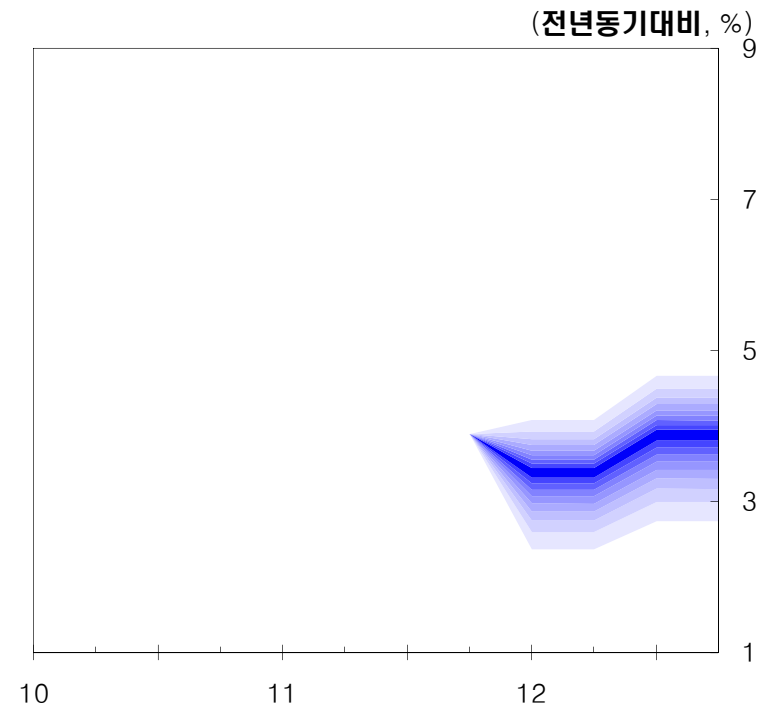
참고: 국제요인에 따른 하방위험 상존



그러나 글로벌 불안요인 심화에 따른 경기급락 등 하방위험도 상존

-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 등 글로벌 하방위험(downside risks)의 전개 양상 등에 따라 경기급락 가능성도 잠재
 -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미국의 더블딥이 발생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국내외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
 -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로의 전이 가능성 등으로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나타나고, 신흥국으로부터 급격한 자금이탈이 발생하면서 외화자금 경색 발생 우려
-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하회할 확률이 상회할 확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등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

GDP 성장률 Fan Chart¹⁾



주: 1) 전망치에 대한 시기별 확률분포로서 개별 그림자 영역은 각각 10% 확률구간을 나타냄

2012년도 금융시장 전망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평균적 보험세를 나타낼 전망

- 선진국들의 정책대응을 통해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가능성이 완화되고 **주식시장이 선제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
- 미국 경기둔화 및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이전까지 **금리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시장에서는 **높은 변동성**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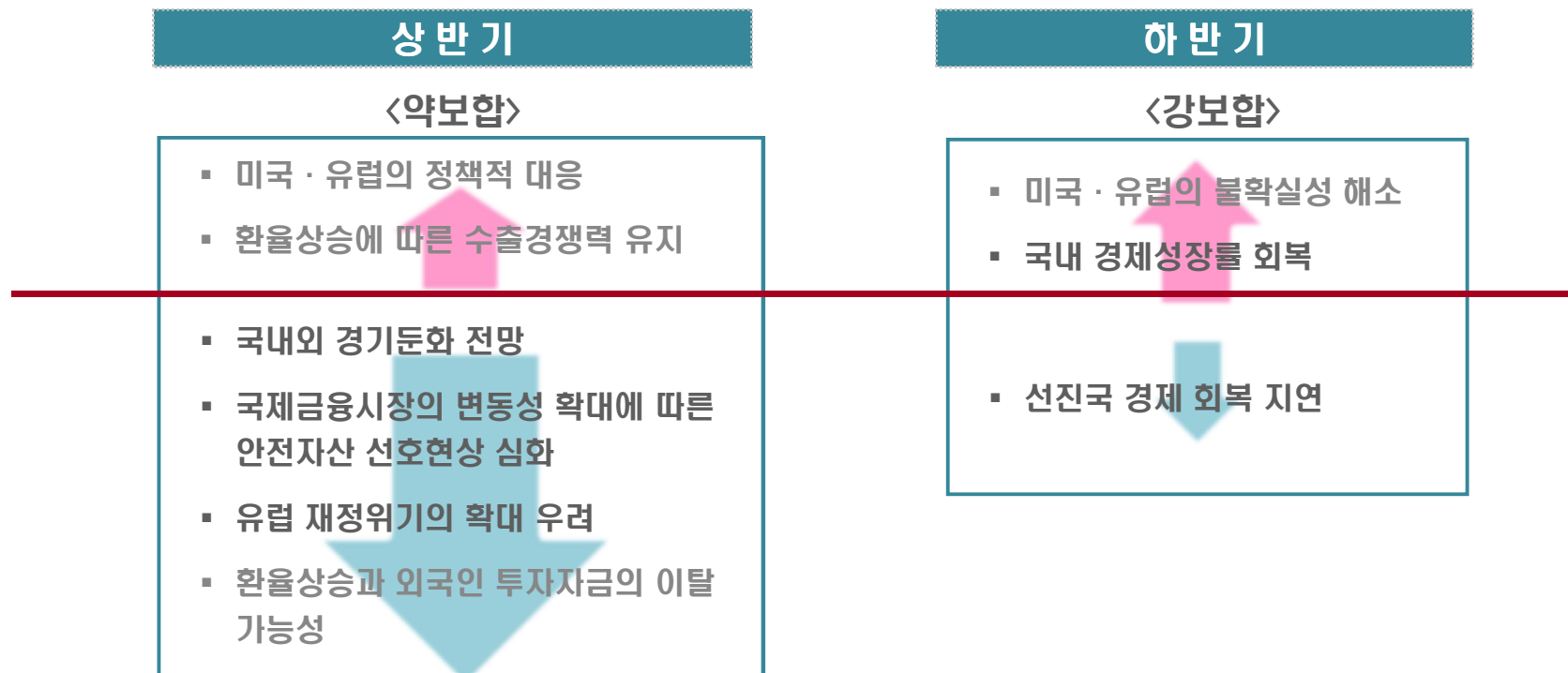
주가	보험 [약보험세→강보험세]
금리	보험 [3.6→3.8%]
환율	상고-하저 [1130→1070원/달러]

금융시장 전망 : 주식시장



유럽 재정위기 극복과정과 미국 경기부양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연간 보험세를 전망

- 현재 세계경제 전반의 둔화세가 단시일에 극복되기 어려워 주식시장의 빠른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움
- 상반기에는 변동성이 지속되며 평균적으로 약보험세 예상
- 선진국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하반기에는 강보험세를 전망



금융시장 전망 : 금리



시장금리는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되나 연평균은 금년과 비슷할 전망

-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면 대내적으로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완화되면서 시장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 그러나 국제자금흐름을 보면 세계경제 불확실성 완화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채권매입 규모가 확대되어 금리상승폭을 제한
- 또한 대내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경제성장세도 둔화되기 때문에 금리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금리 변화 요인

안전자산 선호 경향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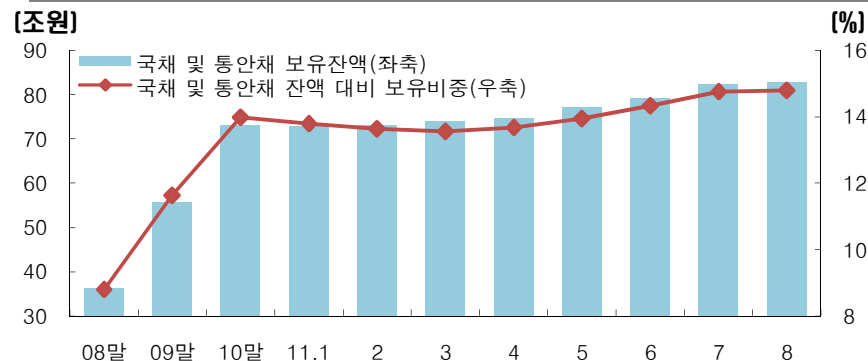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및 경제성장세 둔화



외국인 및 국내기관의 높은 채권매입 수요



외국인 국채 및 통안채 보유잔액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금리 전망

	2011			2012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고채 (3년)	3.7	3.5	3.6	3.6	3.8	3.7

주 : 2011년 하반기 이후 KIF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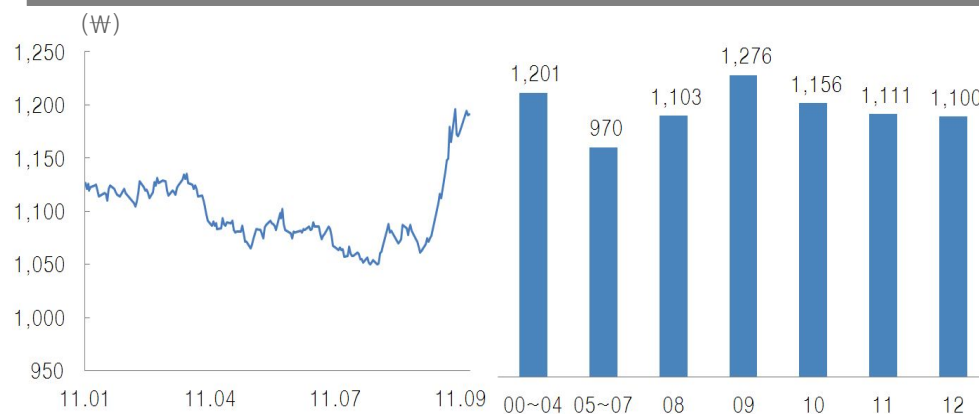
금융시장 전망 : 환율



원/달러 환율은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원/달러 평균환율은 상반기 1,130원, 하반기 1,070원으로 예상되며, 연중 1,100원 수준이 될 전망
- 상반기 중 안전자산 선호 경향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심리 개선, 경기회복 신호 등에 따라 점차 하락세를 보일 전망
- 다만,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방향 및 미국 경기 회복 시점 등에 따라 환율하락 시기가 유동적이어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주 : 2011년 이후는 KIF 전망치

환율 변화 요인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안전자산선호 강화



선진국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둔화



유럽 재정위기 해결 가시화



투자심리 회복에 따른 외국인자금 유입



경기 회복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기대



원/달러 환율(기간평균) 전망

(원)

2011			2012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102	1,120	1,111	1,130	1,070	1,100

주 : 2011년 하반기 이후 KIF 전망치

참고: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위험 상존

글로벌 달러 유동성 경색시에는 외국자금 이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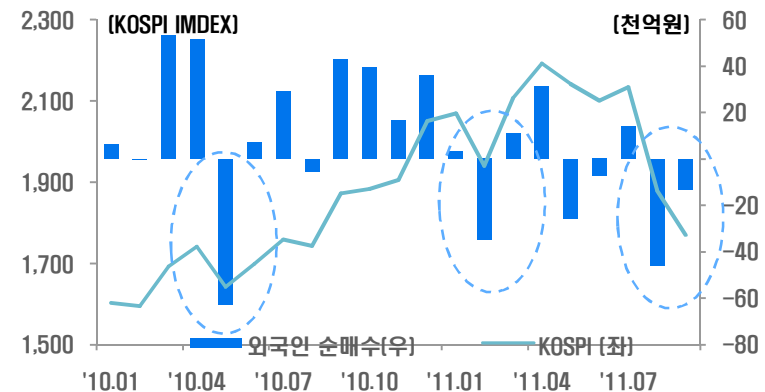
-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영향력 증가 ← KOSPI 증가율과 외국인 순매수 간 일별 상관관계가 2008년 이후 크게 증가
- 글로벌 달러유동성 경색시 레버리지 및 신흥국 자산비중 축소로 외국인 채권 및 주식투자자금 회수 위험
- 특히 우리나라 외화유동성 경색시 신용위험 헤지 비용 상승과 환차손을 우려한 국채 손절매 발생 우려

리보 - OIS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Datastream

KOSPI 지수와 외국인 주식 순매수



자료: FnGuide

〈목차〉



I. 금융환경 변화

II. 2012년 시장 및 산업 전망

1. 시장 전망

2. 산업 전망

III.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제

2012년 금융투자업 전망



환경요인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시장보합세

국제불안요인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경향 강화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 · 변동성은 안정적 투자방식을 모색하는 유인
→ 자산관리와 운용 수요 증가 (고령화로 인한 가속화)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업무영역 및 시장 확대 가능성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들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환경변수
· 업무영역 및 시장의 확대 가능성

기대효과

정체된 시장 및 높은 변동성으로 성장성 · 수익성 정체

·보합 장세로 규모 차원의 획기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수익성 악화

시장 불확실성으로 안정적 투자 수요 증대
→ 자산관리 및 운용 부문 강화

보다 치열한 경쟁국면으로의 전환

·상품 · 자본 · 인력 등에 있어 업권내 및 업권간 경쟁 심화

규모의 경제 추구와 특정 분야 전문성 추구 등 다양한 차별화 노력 강화

성장성

보합 장세에 따라 자산규모의 획기적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증권사

- 자산규모는 소폭 증가할 전망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 및 신규업무 진출을 위한 증자 등으로 자산규모는 소폭 증가할 전망
- 일부 증권사의 대형화 노력으로 시장집중도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시장집중도는 대형 증권사의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하여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생존경쟁을 위한 중소형 증권사들의 인수합병 가능성이 가세될 경우 실제 경쟁도는 오히려 높아지게 될 가능성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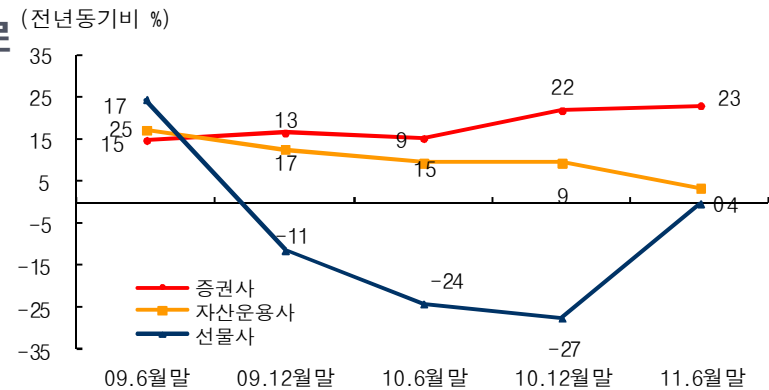
자산운용사

- 자산규모는 소폭 증가할 전망
 - 퇴직연금 확대 등으로 인한 신규 자금유입과 주가 보합세에 따른 자산규모의 소폭 증가 예상
 - 주가회복시 차익실현 목적의 환매 가능성에 따른 부담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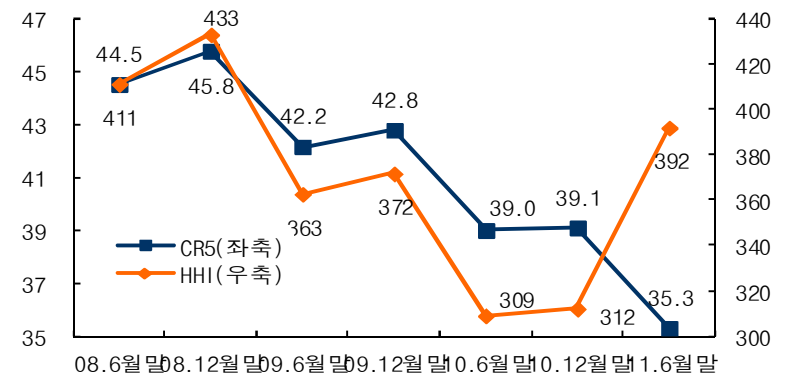
선물회사

- 자산규모 감소세 유지 전망
 - 증권사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선물회사의 증권사로의 업종전환이 지속되면서 선물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자산증가율 추이



증권사의 CR5 및 HHI 추이



수익성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수익성은 다소 악화, 선물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전망

증권사

- 수수료 수입 감소로 수익성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예탁금 이용료의 상승 및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인하여 수탁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주식시장의 보합세로 인하여 거래수수료도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신규 업무영역 개척 등의 수익 다변화 노력은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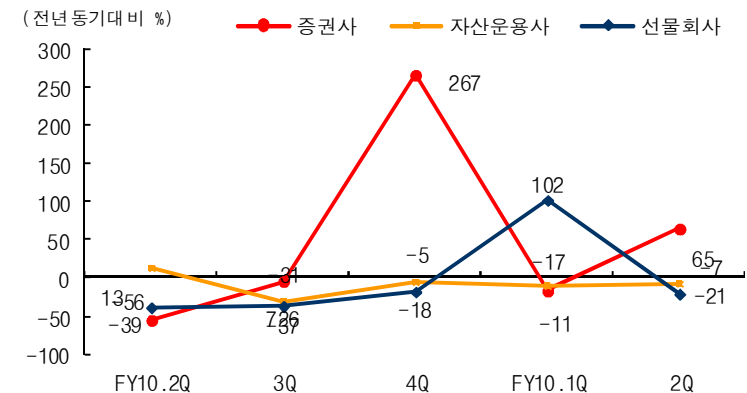
자산운용사

- 수수료 수입 감소로 수익성이 다소 악화될 전망
 - 당국의 수수료 인하 노력 등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감소로 수익성이 다소 악화될 전망
 - 헤지펀드나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일부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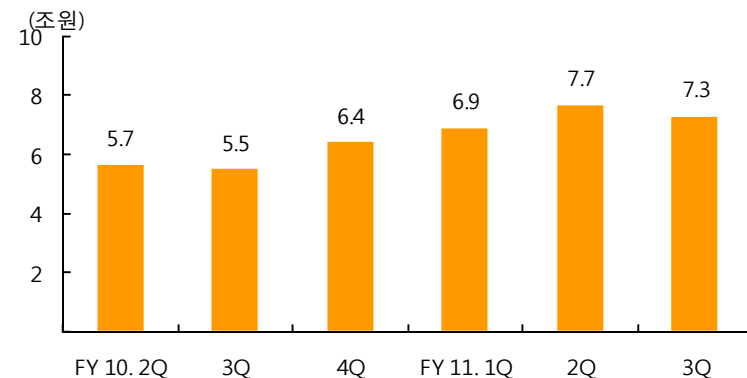
선물회사

-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소수의 선물회사에 치중된 업권현황으로 인하여 향후 시장의 축소가 불가피

당기순이익 증감을 추이



일평균 거래대금



건전성

재무건전성은 소폭 저하되었으나 양호한 수준 유지

증권사

- 재무건전성 다소 저하 가능성
 - 시장 불확실성의 확대에 따른 총위험액의 증가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은 다소 하락할 가능성
 - 다만 수익성 개선 여부 및 대형화 노력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이 일부 증가할 가능성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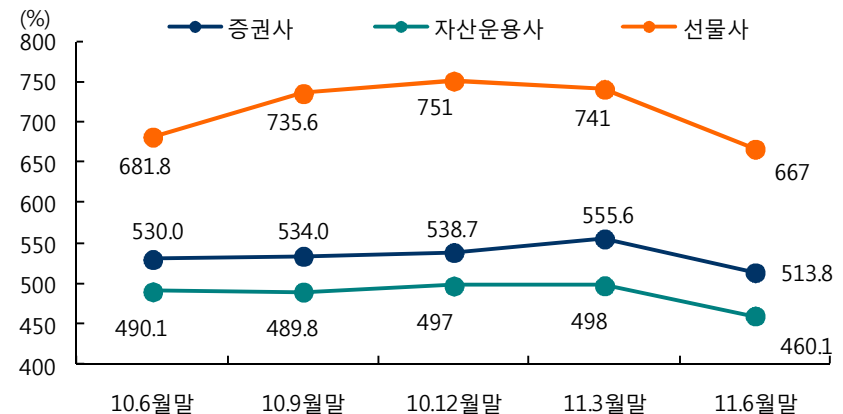
자산운용사

- 재무건전성 저하 가능성
 - 수익성 악화에 따른 영업용순자본 감소 가능성
 -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한 총위험액의 증가 가능성으로 인하여 재무건정성은 다소 저하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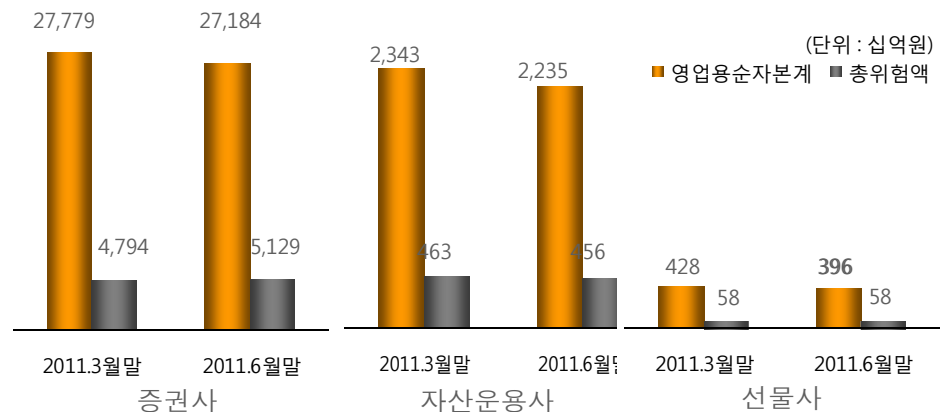
선물회사

- 재무건전성 저하 가능성
 - 수익성 악화 및 위험자산의 증가로 영업용순자본 악화 예상

영업용순자본비율 추이



영업용순자본비율 구성



〈목차〉



I. 금융환경 변화

II. 2012년 시장 및 산업 전망

1. 시장 전망
2. 산업 전망

III.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제



함께 성장하는 자본시장

**선진적
시장구조
정착**

**실물
지원기능
확충**

**안정적
시장발전
추구**

양극화 진전에 따른 사회 · 경제적 불안요인 강화

위협이자 기회로서의 글로벌 불안요인 잔존

2012년 자본시장의 과제(계속)



대외적 불안요인과 대내적 갈등요인의 지속하에서 한국형 장기성장 모형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을 정립하고 함께 성장하는 자본시장으로 발전

- **‘선진적 시장구조 정착’ 작업의 마무리**
 - 자본시장법 개정의 구체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장구조에 대한 본격적 개편 작업을 지속
- **‘실물 부문에 대한 지원기능 확충’ 을 위해 노력**
 - 경제 양극화 해소에 있어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Micro-Finance 투자상품 개발 등을 추진
- **‘안정을 바탕으로 장기적 성장’ 방안을 모색**
 -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 투자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정책 및 감독] 혁신 유인 고취 및 업무영역 차별화 유도



-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시장의 혁신 유인 고취를 위한 전략 추진
 - 개정안의 현실 적합성 제고를 통해 사회적 동의 기반 형성
 - 시장규율 강화 및 시장충격을 통해 시장 자발적 구조변화 유인 고취 필요
 - 단순한 신규 업무 허용으로 인식될 경우 오히려 구조개선 지연
 -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퇴출제도를 강화하여 유연한 시장구조를 확보
 - 발행시장 규율 강화를 통한 기업금융 시장 정상화를 우선
- 장기적으로 규모에 따른 업무영역의 차별화 유도
 - 대형 투자은행의 경우 투자은행 업무 전반을 영위하는 체제를 구축
 - 전문 특화 증권사의 경우 백화점식 영업구조를 지양하고 기업금융 업무 중 강점이 있는 일부 업무에 역량을 집중
 -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현재 소매시장 중심의 영업구조를 지속
- 시스템에 대한 영향 유무에 따라 증권사 건전성 규제 완화 이원적 추진
 - 시스템 위기 유발 가능성이 낮은 중소형 증권사는 건전성 규제 대폭 완화
 - Domestic SIFI 지정 증권사는 건전성 규제의 수준을 오히려 강화

[정책 및 감독]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에 대한 규율



- 헤지펀드 도입에 대한 우려 감안, 부작용 발생 여지를 최소화하는 접근법 채택
 - 과도한 차입으로 손실 발생시 투자자 및 타금융사에 충격전이, 시스템 리스크 유발
 - 유사한 투자전략으로 인한 쏠림현상으로 시장충격 확대 유발
 - 정보 불투명성 및 가치평가의 어려움.
- 프라임브로커를 통한 헤지펀드 간접 규율방안 마련
 - 헤지펀드에 신용을 공여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등 우회적 방법을 통해 헤지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제어
-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보확보 및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
 - 최대한의 자율 확보가 필수이나, 관련 정보 획득 체계 및 사후적 규제 근거는 확보
- 대신 헤지펀드 운용업을 등록제로 운영하여 펀드매니저 중심 시장 육성

[정책 및 감독] 대체거래시스템 도입과 유통시장의 질서유지

복수시장으로 구성된 유통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정성과 거래 투명성을 보장하고, 시장조작 및 여타 불공정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및 감독원칙 수립

- 최선집행의무 부과 대상과 방식 결정
- 펀드 순자산가치(NAV) 산정 관련 제도적 기준 마련
 - 미국의 경우, 자율적으로 시가·종가형성을 위한 동시호가는 정규거래소만 진행
- 거래소의 청산업무 전담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 해결방안 확보
- 효과적·효율적 시장감시를 위해 사전·사후정보가 취합될 수 있는 체계 구축
 -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복수 거래소 및 ATS에 연계된 동일인, 계열그룹 등의 복수 계정 거래정보를 통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복수의 거래시장 체제를 포함 유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상충 소지들이 모든 시장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공지되는 것이 핵심
- ATS 설립, 거래소화 요건 및 시기, 거래소의 ATS 참여, 시장개방 등에 대한 우선 순위와 일정을 담은 중장기 시장발전 전략 마련

[정책 및 감독] 감독역량 고도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자본시장 감독역량 고도화 필요성
 - 다양한 시장참여자, 복잡화된 상품과 거래전략의 등장, 연계거래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감독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증가
 - 각종 신상품, 복수 시장을 고려한 감시망과 감독역량 확충
 - 증권대차에 있어서의 조건, 담보설정 등과 관련한 감독규정 및 방안 수립
 - 투자은행 업무 다양화나 사모펀드 활성화로 인한 각종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비
 - 사후적 이상징후 포착 및 개별사례에 대한 엄정한 처벌만이 다양한 불공정행위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실효적 수단
 - ATS 도입으로 전체 시장에 대한 감시에 있어 감독당국의 개입수준 제고
- 취약계층 대상의 금융소비자보호 문제에 추가적 노력을 경주
 - 취약계층이 금융상품의 판매 관련 문제에서 대표적 피해계층으로 부각
예) 파워인컴펀드,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의 취약계층은 고령층 및 예비 고령층, 은퇴자 및 예비 은퇴자, 저소득층 등을 포괄

[정책 및 감독] 중소혁신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투자방안 구축

경제 양극화 해소에 있어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소혁신기업 투자활성화, Micro-Finance에 대한 자본투자 방안 등을 추진

- 벤처캐피탈 등 중소혁신기업 투자기구의 금융기능 강화
 - 사모펀드 규율체계 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공급이 시장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비우량회사채 시장 활성화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내부 투자기준 현실화
 - 비우량회사채 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비우량회사채 활성화를 위한 파생상품(CDS, 합성 CDO 등) 활용방안 검토
- Micro-finance 기관에 대한 자본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
 - 해외의 경우 Micro-finance 기관의 자금조달에서 자본시장의 역할 증가
- 사회책임투자 기조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의 교정기능 강화
 - 연기금, 펀드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추진

[정책 및 감독] 자본시장의 안정성 확보



자본시장 안정성 확보 및 장기·간접투자 성과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 간접·장기투자 활성화 정책의 수립
 - 세제를 포함하여 간접투자자와 장기투자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마련
 - 애널리스트들을 포함한 이해상충 문제의 통제 여부 점검
- 자본차익과세 도입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방향 설정
 - 장기·간접투자자에 대한 상대적 세제혜택 부여로 투자행태 보정
 - 세수나 금융투자업 구조개혁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 필요
- 특정 투자자군의 시장 변동성 확대 행위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외국인, 헤지펀드 등 투자자금의 특성과 관련하여 주식과 채권, 파생 등 시장 전반에서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

[금융회사] 중장기적 성장기회의 모색



-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규제 강화로 단기 성장성 및 수익성 악화 예상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사업영역 확대 및 해외진출 기회, 선진적 금융산업 구조로의 재편 기회로 인식할 필요
 - 대내외 금융불안: 위기이자 기회(해외진출, 우수인력확보, M&A 등)
 - 금융산업의 규율 및 감독 강화: 단기적 비용요인 vs. 장기적 경쟁력 제고
 - 금융산업의 사회적 공헌 확대 요구: 금융에 대한 인식 전환의 촉매
 - 안정적 자산 관리와 장기 금융수요 확대: 수익 다변화 및 안정화 기반
- 따라서 중장기 관점에서의 성장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
 - 시장구조 개편에 대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차별화 노력 강화
 - 업무영역 · 시장 확대 및 상품 · 자본 · 인력 등 다면경쟁 국면으로의 전환

[금융회사] 중장기 성장전략 설정



- 신성장동력 발굴
 - 규모 혹은 특화 등 중장기 성장전략 설정
 - 고성장 · 금융개도국으로의 적극적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자산 확대
 - 회사채 관련 투자상품, SRI 상품, 고령화 관련 상품 등 적극적 신상품과 서비스 개발
- 금융산업의 규율 및 감독 강화에 대비하여 경영 인프라 개선
 - 공시 및 소비자보호 강화기조 등에 대비하여 조직, 내규, 인력 등 내부체계 정비
 - 전자금융 범죄에 대비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정비
- 금융산업의 사회적 공헌 확대 요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공공성 제고
 - 유망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직접금융상품 개발
 - 서민지원금융,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서의 자본시장 기여방안 모색
- 리스크 관리 강화
 - 자기자본투자 등과 관련한 건전성/수익성 제고
 - 자금조달구조의 안정화 방안 마련

[금융회사] 투자은행 역량의 강화



- 금융투자업 구도 개편에 대비하여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여타 금융투자업자들과의 차별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
 - 투자은행 비즈니스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고위험 수반
 - 후발주자가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한 전례가 없는 매우 폐쇄적 시장
 - 국내 자본시장 규모나 필요 인프라의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하는데에는 매우 장기간이 소요
 - 단기적 이익실현을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전략 수립과 투자 필요
 -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금조달 노하우, 위험부담능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문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 따라서 상품, 자본, 인력 등 전사적 차원에서 향후의 경쟁전략을 수립
- 프라임브로커 업무 진입사는 안정적 자금조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자금 공여 및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증권사 자신의 자금조달 안정화 필요
 - 중장기적 관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및 선진 투자은행들의 베스트프랙티스가 체화되어 있는 IT 시스템 확보
 - 헤지펀드에 대한 간접 규율 주체로서 헤지펀드에 대한 감시역량 확보
 - 능률적이고 신뢰가능한 후선업무 제공자(administrator)군 발굴

맺음말: 역동성과 효율성 제고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규제환경의 변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영업환경의 변화에 직면
- 국내시장 경쟁은 단순한 규모의 경쟁에서 벗어나 차별화 경쟁, 다면화 경쟁의 단계로 진화
 -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도한 선진적 자본시장 비전의 달성
 - 시장, 금융투자업자, 투자자 및 금융상품의 다양성 확보를 통하여 보다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생태계로 진화
- 해외진출을 통해 금융투자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고 다각화 효과 제고
 - 연기금 해외투자 확대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맷음말: 안정성 그리고 시장의 신뢰



Back to the Basic... ‘안정성’ 그리고 ‘시장의 신뢰’

- 금융산업은 분노와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음
 - 성장성 · 수익성에 치중해 왔던 금융산업에 대해 안정성과 신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전환
 - 금융회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임
 - 이것이 곧 금융의 핵심인 신뢰(Trust)를 쌓아나가는 과정
 - 불완전판매 축소 등 금융비자 보호 강화
 - 창의적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기회의 확대
 - 사회적 책임투자 기조의 확산
-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정의실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진행형



감사합니다.



■ 목 차

I. 논의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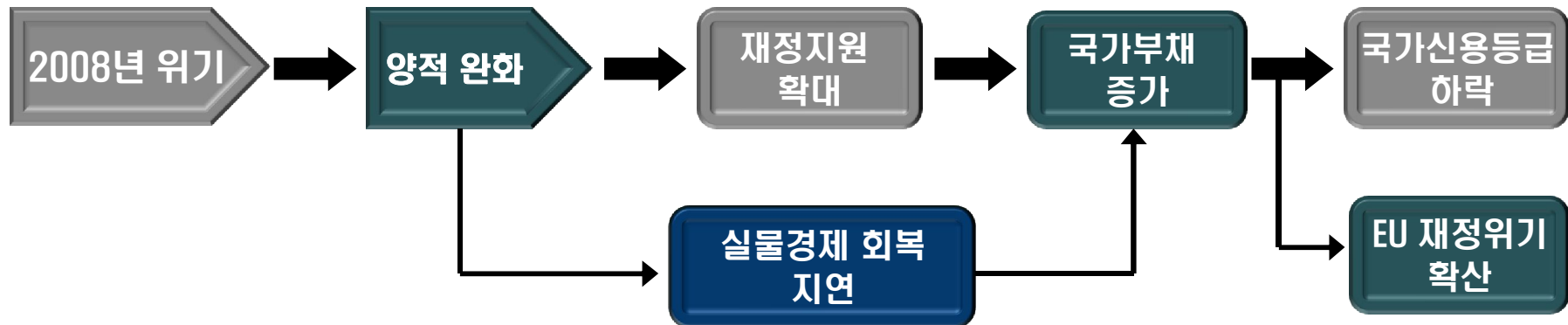
II. 글로벌 금융위기와 은행산업

III. 국내 은행산업 현황

IV. 국내 은행산업의 대응과제

논의의 배경

- ◆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도전과 위험에 직면해 있음.



➡ 향후 글로벌 경제와 금융부문의 위험요인에 따른 파급효과는 무엇이며(What), 얼마나(How long) 진행될 것이며 어떻게(How)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논의의 배경(계속)

- ◆ 이하에서는 글로벌 금융불안 요인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 보고 국내 은행산업의 향후 과제를 제시함.





■ 목 차

I. 논의의 배경

II. 글로벌 금융불안과 은행산업

2.1 글로벌 금융불안과 최근 흐름

2.2 불안요인과 파급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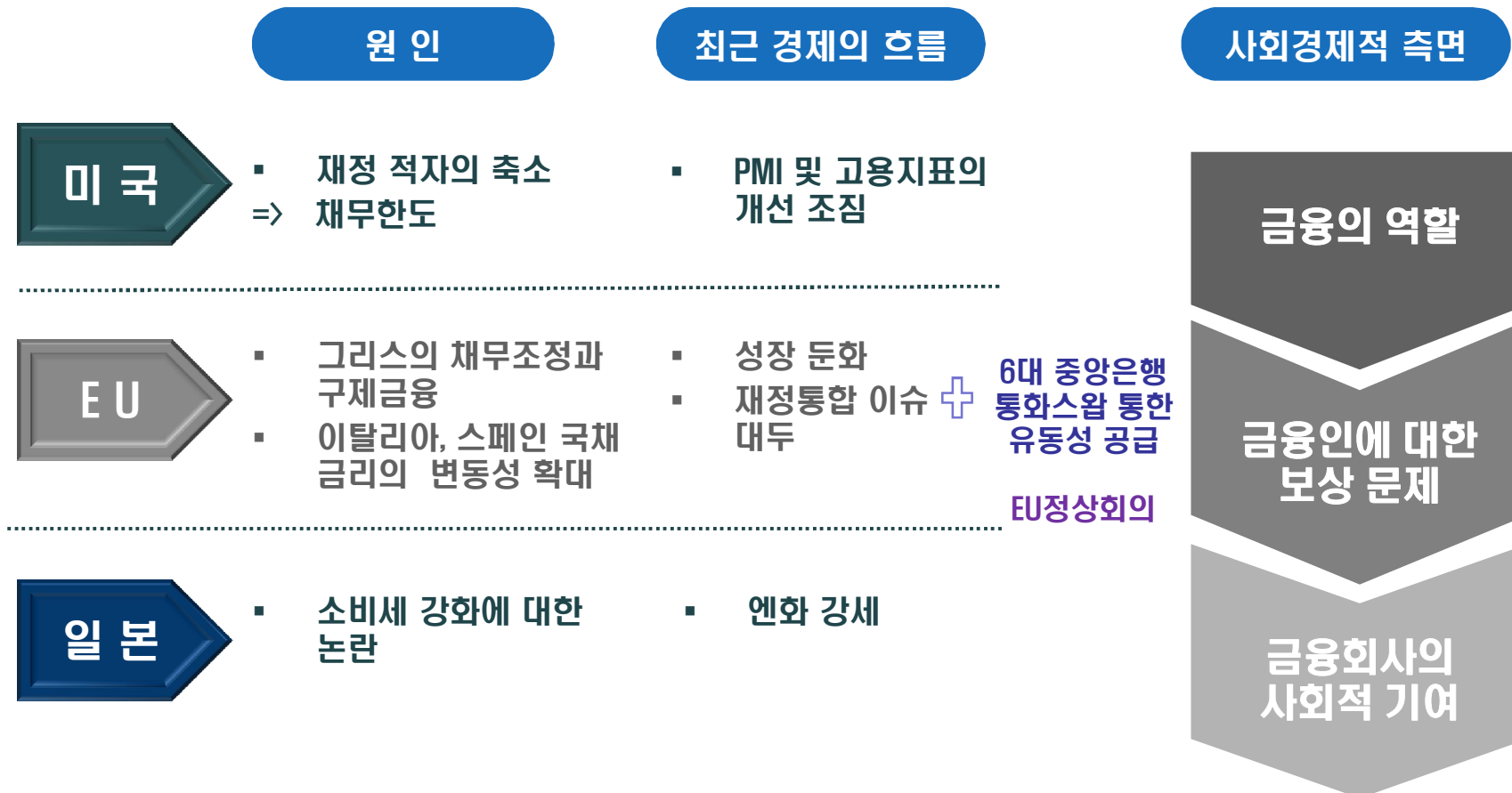
2.3 은행산업에 대한 시사점

III. 국내 은행산업 현황

IV. 국내 은행산업의 대응과제

1. 글로벌 금융불안 요인과 최근 흐름

- ◆ 글로벌 금융시장은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금융과 실물의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는 가운데, 금융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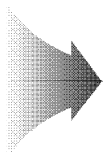


2. 선진시장의 불안요인

- ◆ 선진경제 간 차별화 가능성이 있으나, 실물경제의 회복 강도나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점검은 지속될 전망이다.

예 시	GDP 증가율	소비 증가율	주택시장 (부동산)의 개선	재정건전성	금융시장의 유동성	금융산업의 건전성
미 국	— / ↑	—	—	— / ↑	—	—
E U	↓	↓	— / ↓	— / ↑	—	— / ↓
일 본	— / ↓	—	—	—	—	—

주 : 1) ↓ : 악화, — : 현상 유지, ↑ :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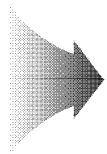
-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변동성 확대에 대비
- 실물경제의 회복속도가 둔화되거나 지연될 경우에 대비

2. 신흥시장의 불안요인

◆ 신흥시장은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에 불구하고 거시경제 구조와 금융부문의 완충력 등에 따라 차별화 될 전망이다.

예시	GDP 증가율	수출기반	내수기반	인플레이션	가계부채	부동산 버블	금융시장 유동성	금융산업의 건전성
중 국	— / ↓	— / ↓	—	— / ↑	↓	—	— / ↑	—
인 도	—	— / ↓	—	— / ↑	—	—	—	—
브라질	— / ↓	—	—	—	—	↓	—	—
호 주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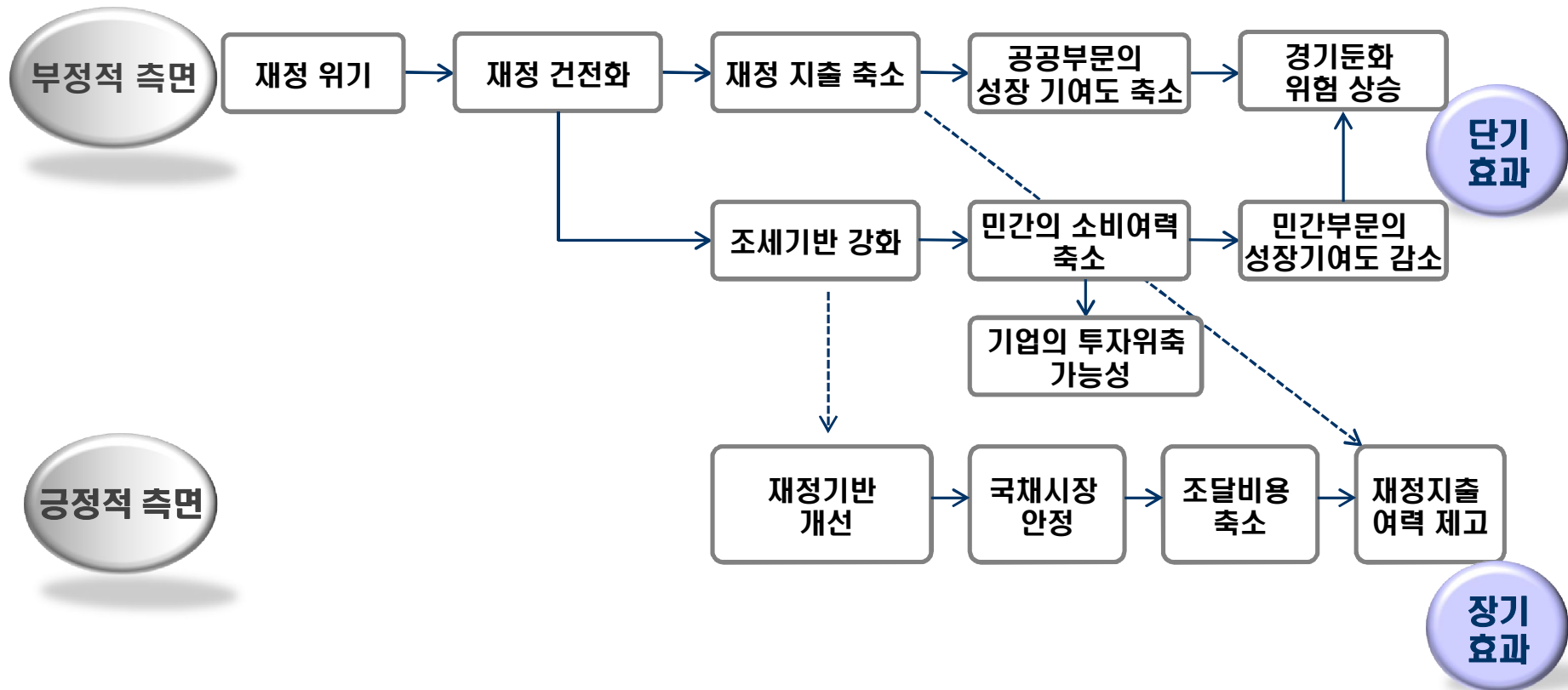
주 : 1) ↓ : 악화, — : 현상 유지, ↑ : 개선



- 신흥시장은 실물경제 및 수출기반의 둔화에 대비
- 부동산 혹은 가계부채 관련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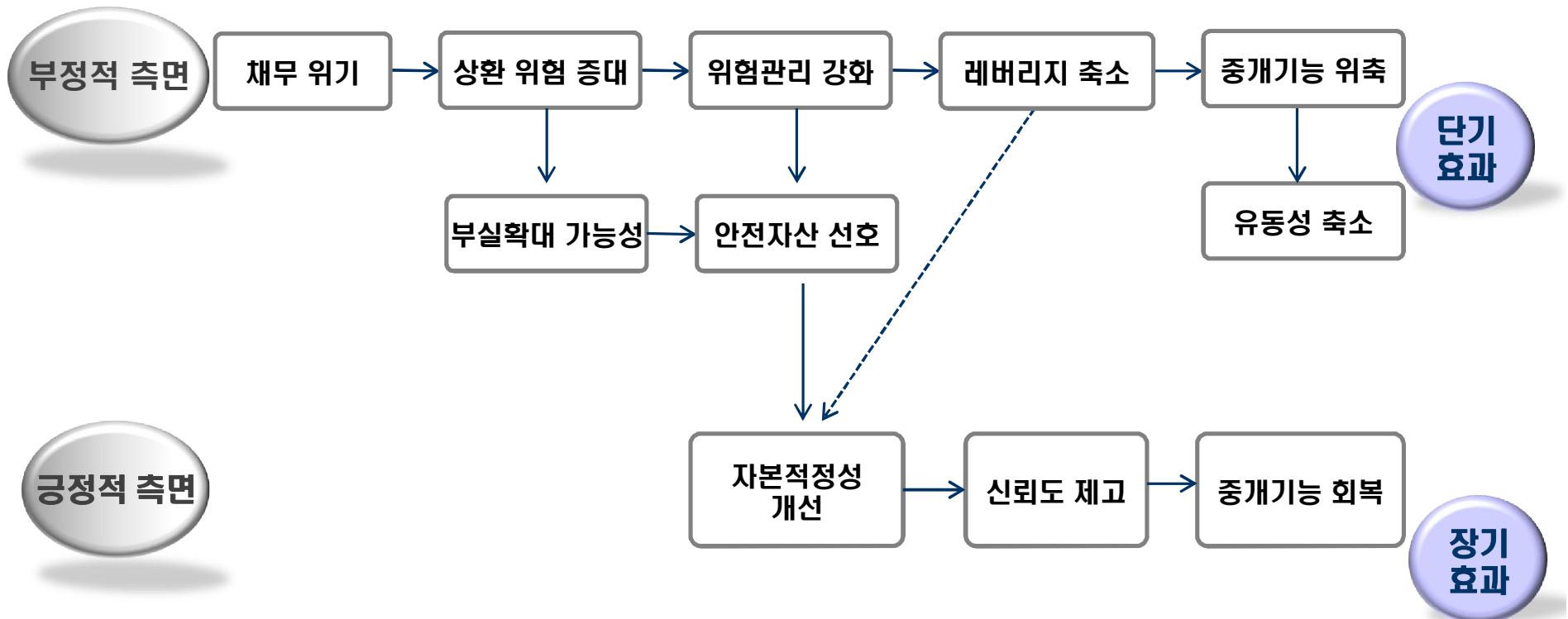
2. 실물경제의 파급경로

- ◆ 실물경제는 재정건전화에 따른 재정효과 축소로 인해 민간경제의 회복 여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경기하락위험이 확대될 수 있음.



2. 금융시장의 파급경로

- ◆ 금융시장은 안전자산의 선호, 건전성 강화, 레버리지 축소 등에 의해 단기적으로 긴축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음.



3. 은행산업에 대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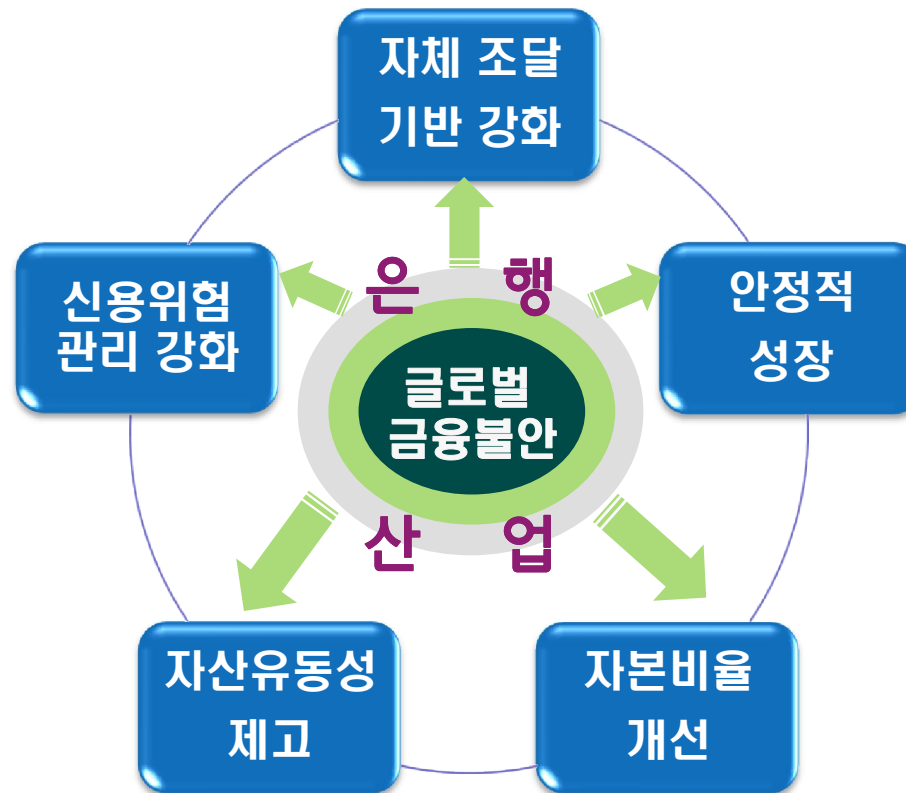
- ◆ 글로벌 금융불안은 은행의 자산운용 체계 및 방향, 자산건전성 관리, 조달구조 및 형태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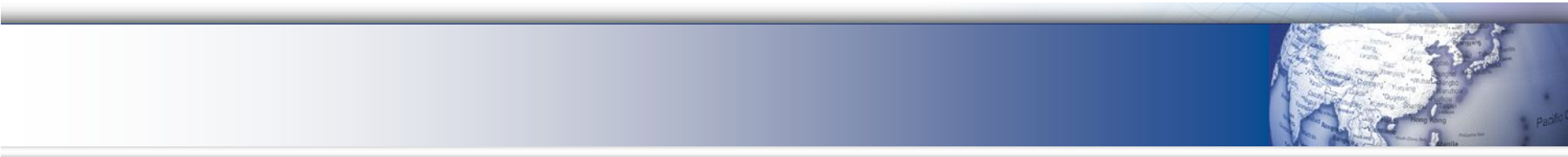
	실물경제			금융시장			
	재정지출 축소	소비 및 투자 위축	경기둔화	상환위험 증대	안전자산 선호	레버리지 축소	유동성축소
은행산업의 조달구조	▼				▼	▼	▼
자산운용 체계 및 방향		▼	▼	▼	▼	▼	▼
자산건전성 관리		▼	▼	▼		▼	▼
자본적정성 확보	▼					▼	

주 : ▼ 관련성이 높은 부문

3. 은행산업에 대한 시사점 (계속)

- ◆ 이에 따라 자체 조달기반의 강화, 신용위험의 관리 강화, 자산유동성 개선, 자본비율 개선, 안정적 성장 기조 등을 재조정(re-adjustment) 요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 목 차

I. 논의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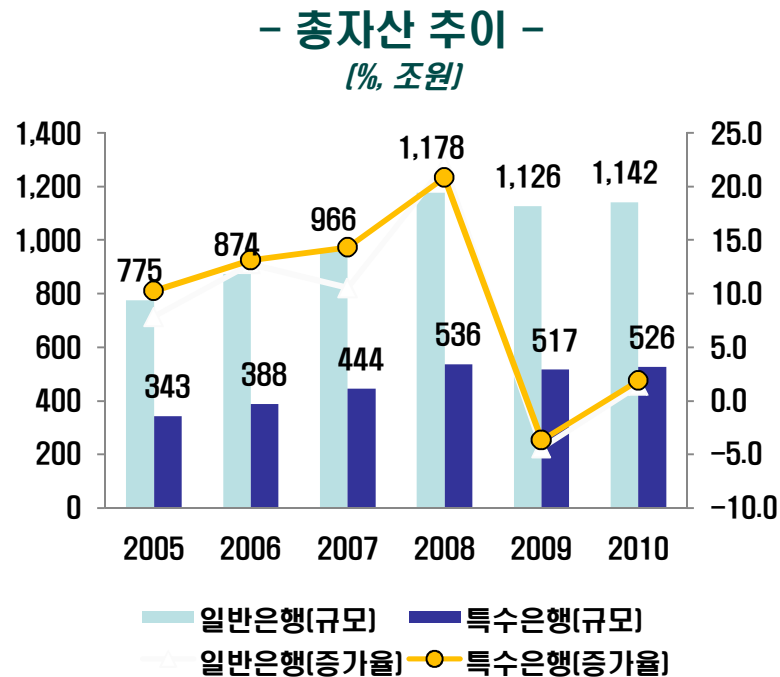
II. 글로벌 금융불안과 은행산업

III. 국내 은행산업 현황

IV. 국내 은행산업의 대응과제

자산의 지속적인 증가(accumulation)

- ◆ 자산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글로벌 여건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이 확대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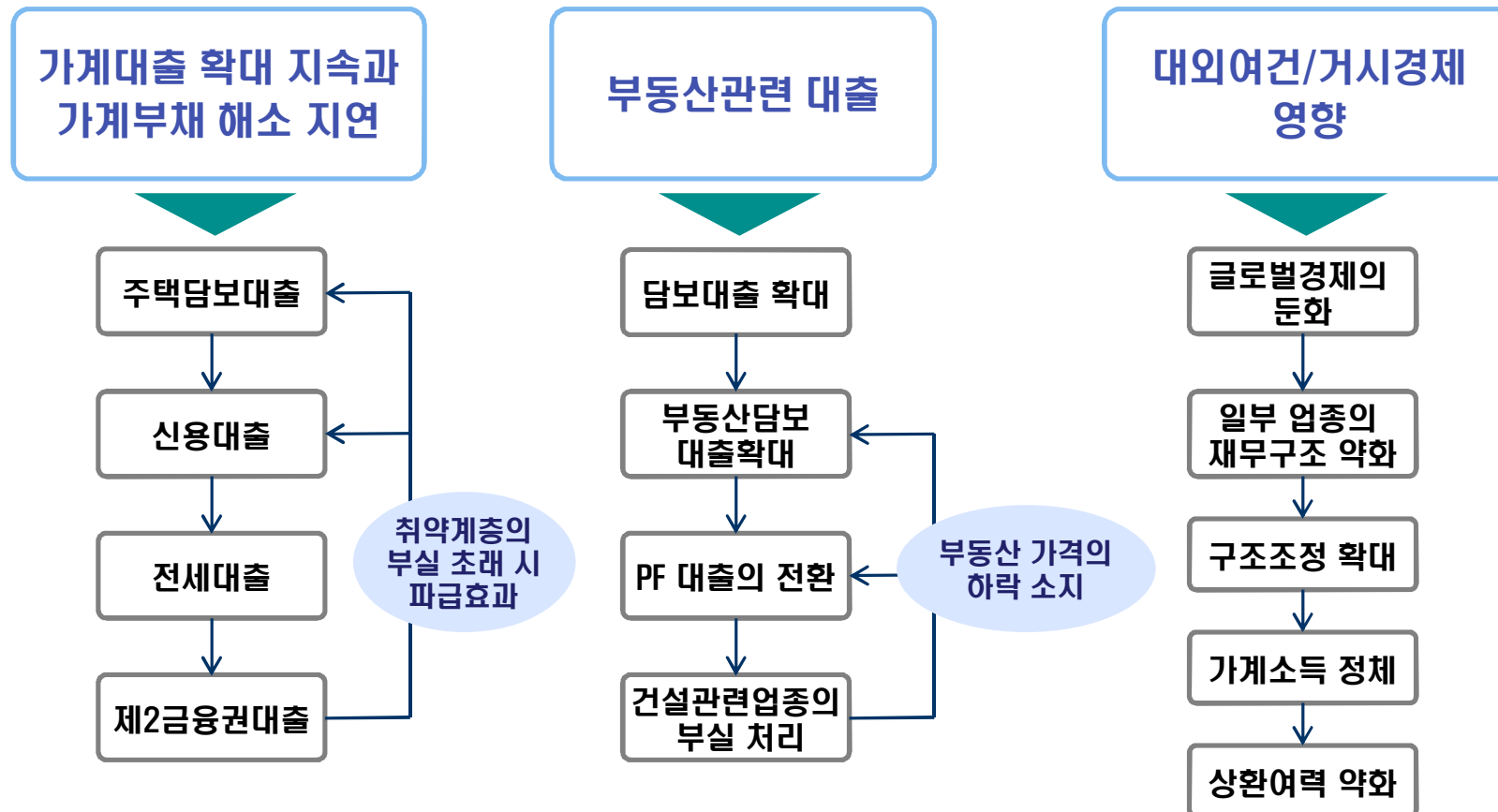


성장여건의 구조적 전환?

-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 ↔ 조달기반/비용의 변화 가능성
- 시장 유동성 확대 ↔ 자산적정화 (deleverage)
- 자산경쟁의 지속/심화 ↔ 시장구조의 전반적인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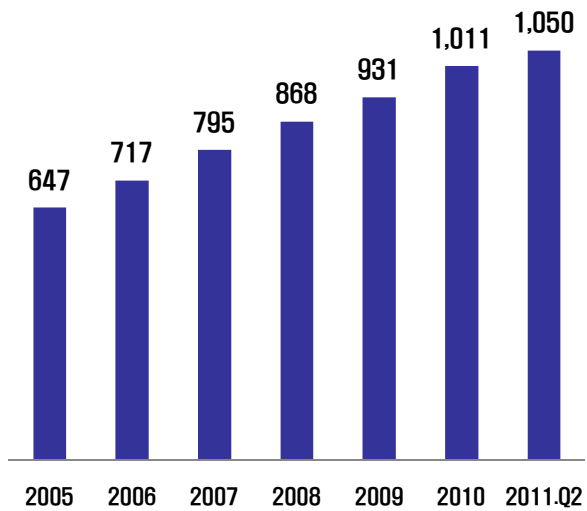
가계대출의 확대 지속(diffusion)

- ◆ 가계대출의 확대와 해소 지연, 제2금융권과의 연계성 확대, 부동산 익스포저 관련 업종의 건전성, 대외경제의 불안 등은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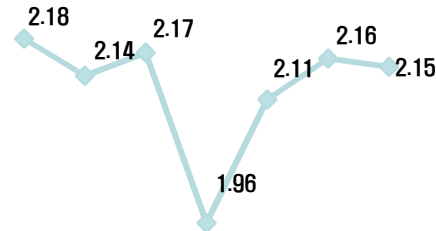
<참고> 가계대출 관련 주요지표

- 가계부채의 추이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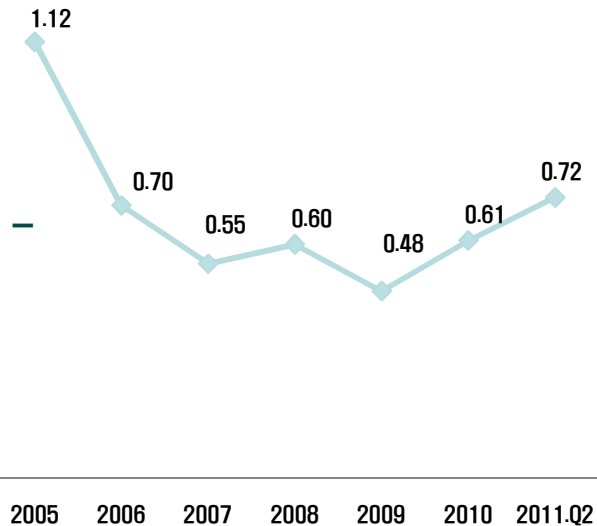


주: 가계 및 비영리단체
자료: 한국은행

- 가계부문의 이자상환비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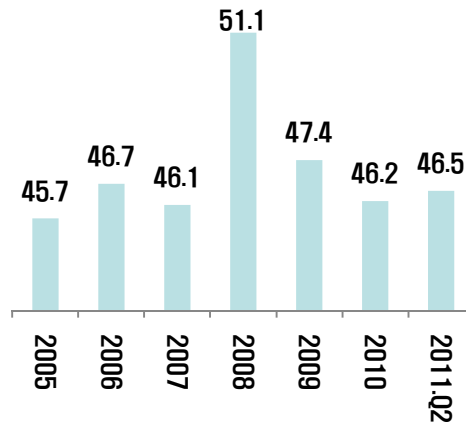


- 가계대출의 연체율 -
[%]



주: 국내은행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 가계부문의 금융자산부채비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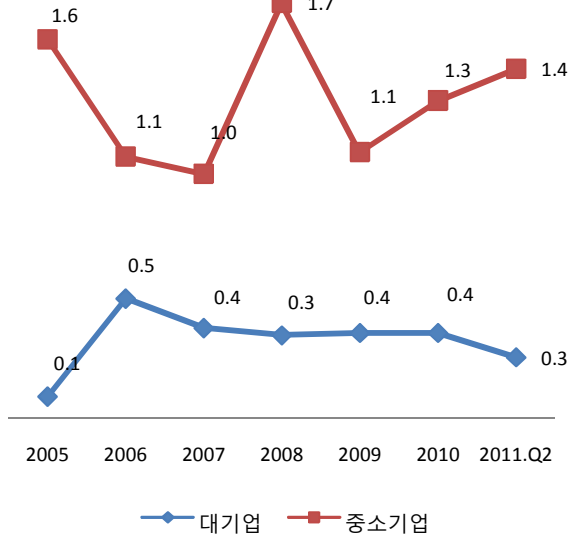
주: 금융부채/금융자산

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 확대 가능성(cyclic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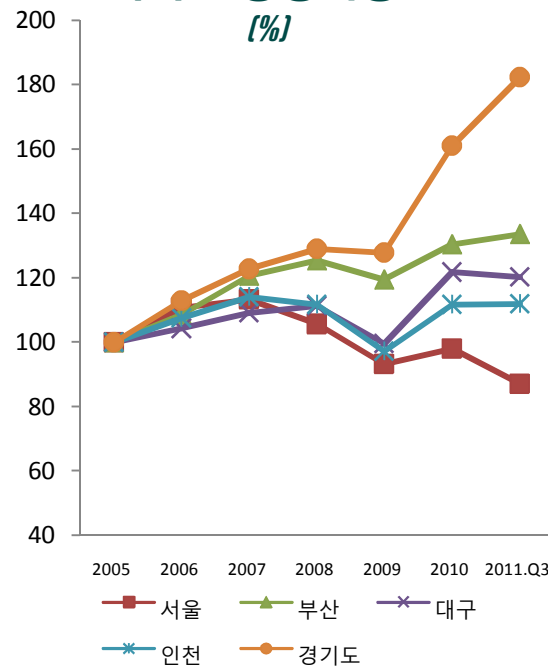
◆ 경기순응성 등으로 인해 거시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업종별이나 규모별, 지역별 중소기업여신의 건전성이 크게 변화될 수도 있음.

- 기업여신 연체율은 거시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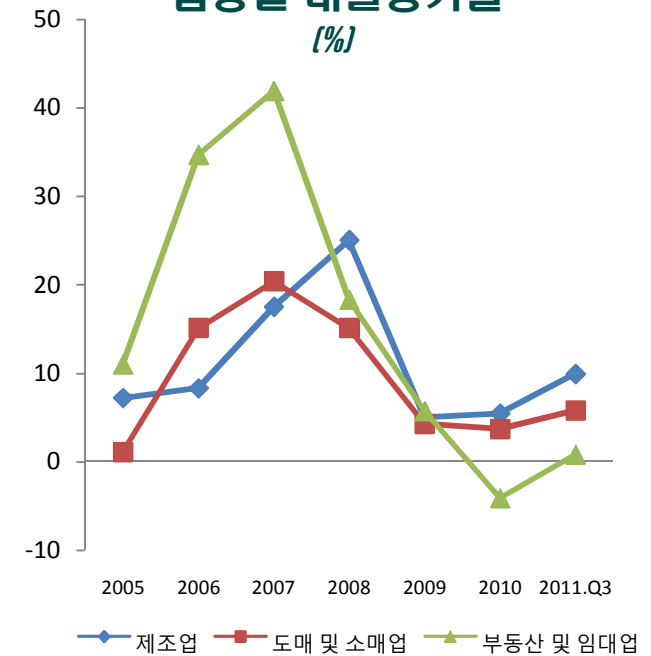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연체율 -
[%]



- 지역별 공장가동률 -
[%]



- 업종별 대출증가율 -
[%]



이자이익에 대한 의존도 증가(dependency)



◆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비중 확대는 자산증가율 둔화나 여신건전성의 변화에 따라 규모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

- 성장기조의 변화는 이자이익의 증가율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
- 여신자산의 건전성은 수익흐름의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초래할 소지

- 이자이익과 비이자 이익-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이자이익	21.4 (87.4)	22.1 (86.6)	24.0 (77.0)	26.3 (88.8)	23.9 (85.6)	26.9 (84.3)
비이자 이익	3.1 (12.6)	3.4 (13.4)	7.2 (23.0)	3.3 (11.2)	4.0 (14.4)	5.0 (15.7)
총이익	24.5	25.5	31.2	29.6	27.9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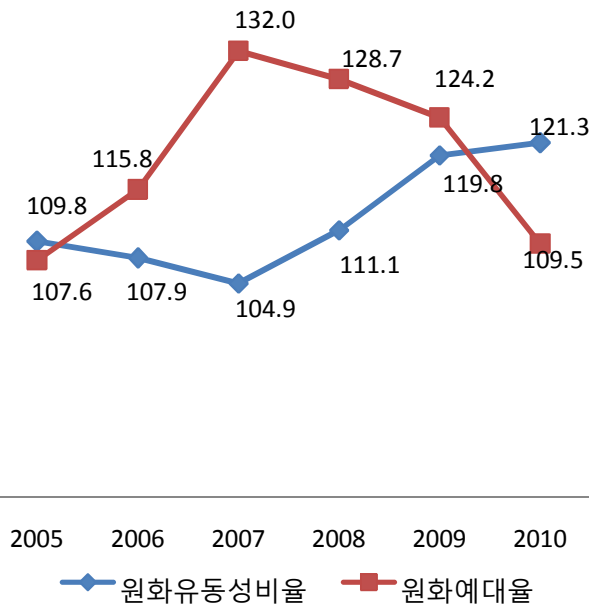
주: ()는 총이익 기준 비중

- 자산 중심의 성장 기조는 은행권의 중장기 이익의 위축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은행권의 성장 기반은 그 이전에 비해 제한적
-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건전성 변화는 궁극적으로 은행의 수익성 위축으로 이어질 수 소지
 - 이 경우 중장기 수익흐름 안정화는 주요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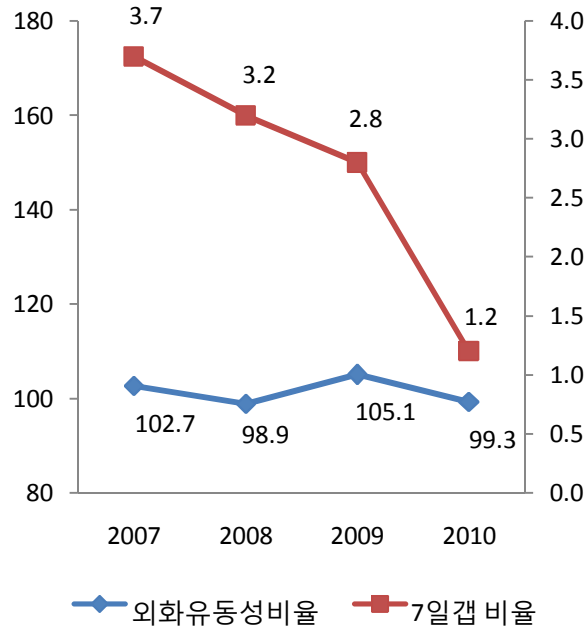
유동성 관리는 양호한 수준(externality)

- ◆ 원화 및 외화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이나 수출기반이나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을 감안해야 함.

- 원화유동성 -
[%]



- 외화유동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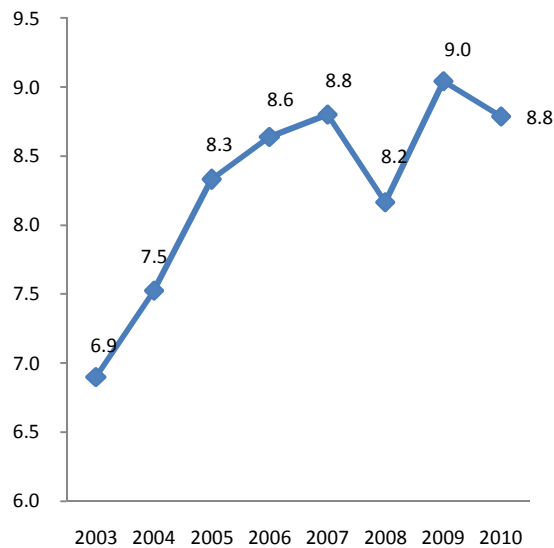
- 원화 및 외화유동성은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감독기조로 대폭 개선
- 다만, 글로벌 금융불안은 일차적으로 외화조달 기회 및 규모에 영향을 초래
- 수출기반이나 중장기 경상수지 추이의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 증가 가능성에도 대비

자본적정성 규제는 계속 강화(pres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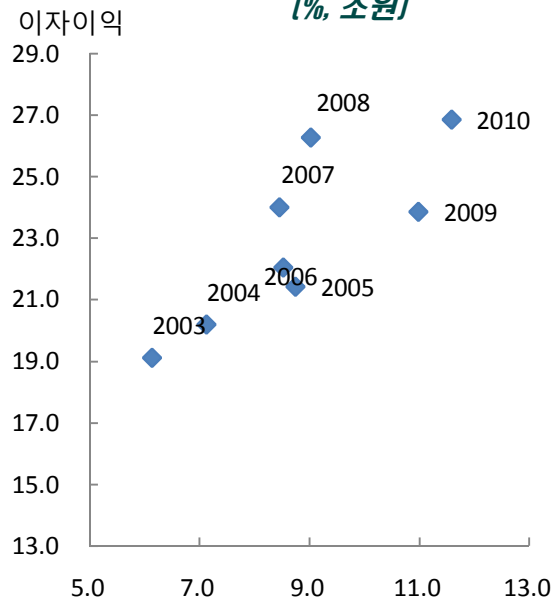
◆ 자본적정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감독 측면 및 거시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비한 보수적 관점도 요구됨.

- 자기자본비율 개선은 자칫 자산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특히 자본적정성 제고는 이자수익의 안정화와의 밀접히 관련
- 대외여건과 이로 인한 변동성 감안한 자본적정성 수준은 지속적인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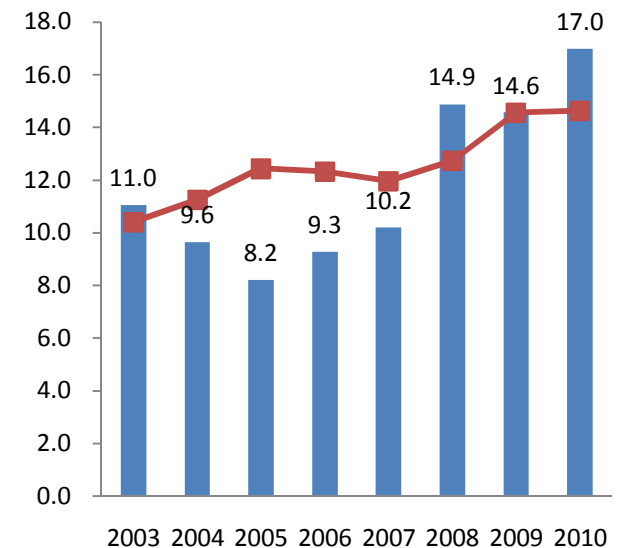
- 자기자본비율 추이 -
[%]



- Tier I 비율과 이자이익 -
[% , 조원]



- BIS비율과 대손충당금 규모 -
[% , 조원]





■ 목 차

I. 논의의 배경

II. 글로벌 금융불안과 금융산업업

III. 국내 은행산업 현황

IV. 국내 은행산업의 대응과제

4.1 경영기조의 변화

4.2 건전성 및 위험관리 강화

4.3 중장기 자본적정성 관리

4.4. 수익안정화와 서비스 체계 개선

4.5 정책기조

국내 은행산업의 대응 과제



- ◆ 국내 은행 산업은 경영 성과 측면과 규제 · 감독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 불안에 따른 영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경영성과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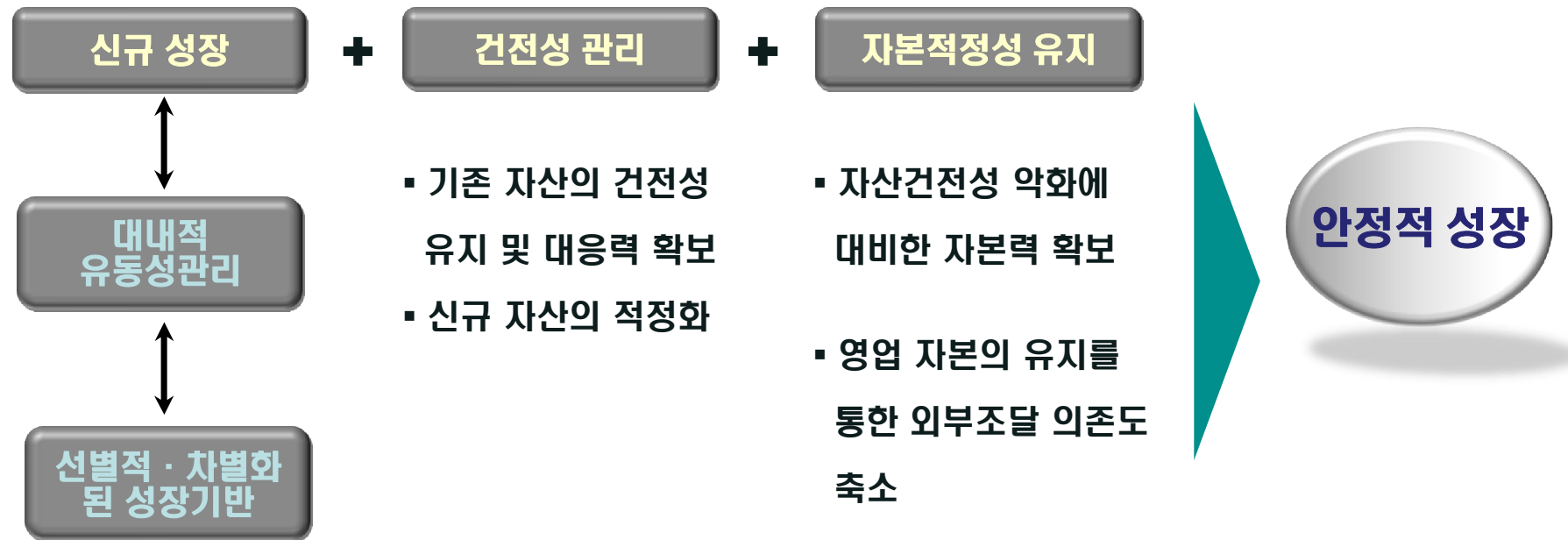
- 은행산업은 성장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 은행산업의 자산건전성 관리에 있어서 위험요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가?
- 은행산업의 대내외 유동성 관리는 적절하고 충분한가?
- 은행산업의 자본완충력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충분한가?

규제·감독 측면

- 지금까지 은행산업에 대한 규율 및 감독 방향은 적절한가?
- 향후 은행산업에 대한 바람직한 감독 및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1. 경영기조의 재점검

- ◆ 국내 은행산업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유동적 수요를 감안하되, 자본적정성 및 완충력 유지를 위한 성장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가계대출에 대한 대응력 강화

- ◆ 가계대출의 구조적 특성과 만기구조, 가처분 소득 추이 등을 감안하여 가계별 재무구조를 반영한 다각적인 사후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함.

예시

주택담보대출

- 원리금 상환 유도
- 소득흐름 및 재무구조를 감안한 상환구조 전환 모색

신 용 대 출

- 소득흐름 중심의 여신정책 유지
- 원리금 상환방식 대출로의 전환 확대

카 드 여 신

- 사용한도의 적극적인 관리
- 회전결제형(revolving) 카드사용액의 상환 유인 확대
- 다중채무자에 대한 한도관리 강화

적극적·다각적
사후관리

2. 기업대출의 선별적인 관리 능력 제고

- ◆ 기업별 · 규모별 · 업종별 재무구조와 중장기 사업성을 고려한 선별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기업금융 수요의 발굴 · 확충 노력도 이어져야 함.

예시

선별적 관리
체계의 중요도

대기업 ·
중견기업

- 재무안정성 중심의 신용평가 강화
- 중견기업의 성장기반 지원

중소기업

- 우량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강화
- 재무구조의 안정화 도모

소기업 ·
창업기업 등

- 보증제도와 연계한 서비스 확충 및 개발 모색
- 사업성 및 기술력 평가에 대한 역량 확충

주 : 1) ○ : 낮음, ⊙ : 보통, ● : 높음.

3. 외화유동성 관리의 중장기 관점



- ◆ 외화유동성 측면은 외화자산을 확보하고 외화부채를 적정화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중장기 발전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중장기 관점

외화유동성 비율

- 자산부채의 효과적 관리
- 안정적 운용(변동성 축소 또는 관리)

외화 자산

- 유동자산의 적극적인 확보
- 우량자산의 확대
- 역외금융의 현지화

수익성 측면에
비해 건전성 · 신뢰도 제고

외화 부채

- 실수요원칙의 강화 (무역금융)
- 적정수준 유지 또는 축소
- 대내적 조달기반 강화

역외조달에 대한 의존도
축소

3. 자본적정성의 전반적인 점검

- ◆ BCBS의 자본규제 강화와 경기순응성 등으로 인한 자체 자본확충 여력의 약화 가능성을 감안한 자본적정성 관리 기초를 강화해야 함.

BCBS의 규제강화

- 최소 보통주 자본비율의 유지
- 자본보전 buffer의 확보
- Tier I 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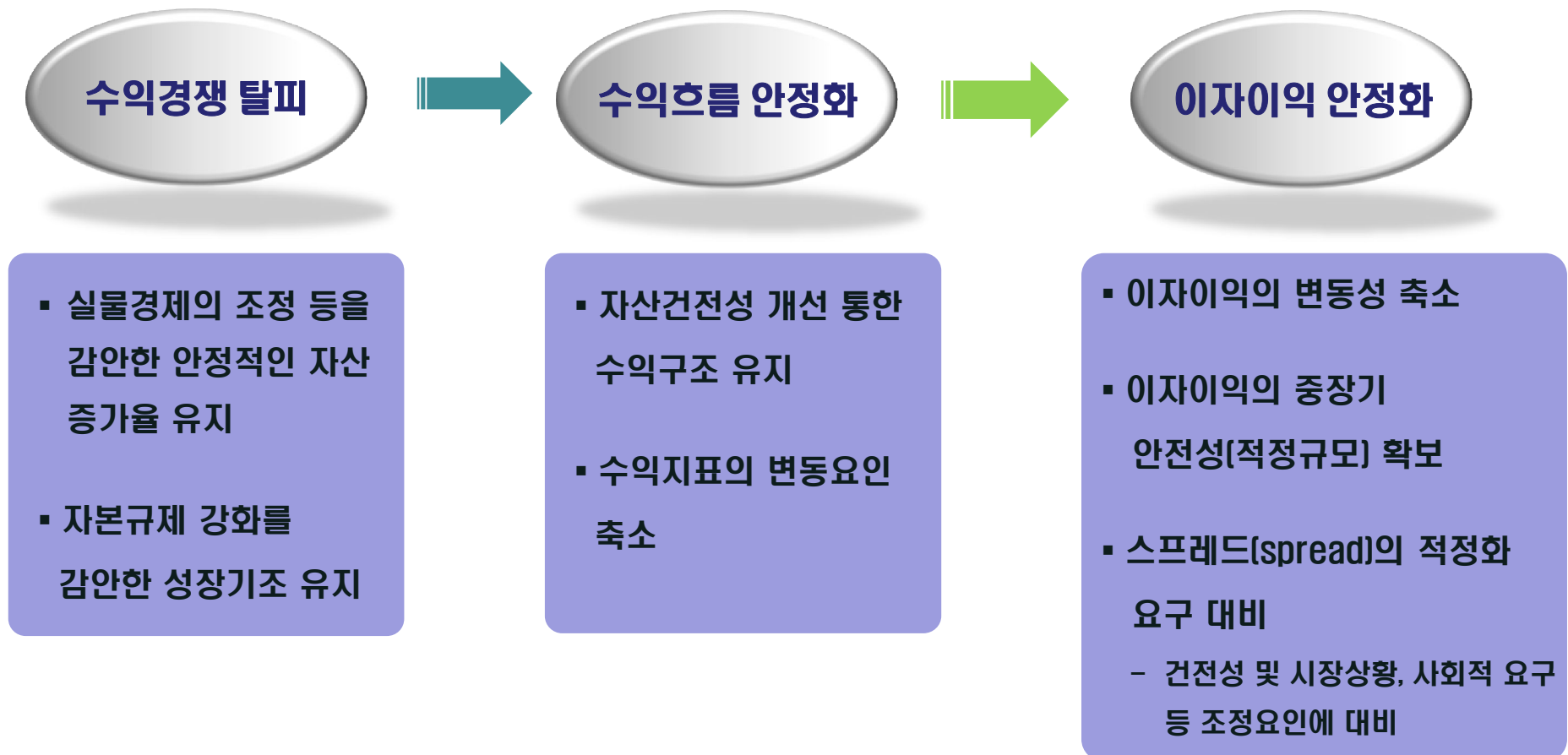
경 기 효 과

- 경기순응적 수익규모의 축소 가능성에 대비
- 건전성 측면의 중장기 자본축소 요인 감안한 자본비율 유지
- 디레버리지 과정의 잠재위험에 대비한 자본건전성 관리

중장기
자본적정성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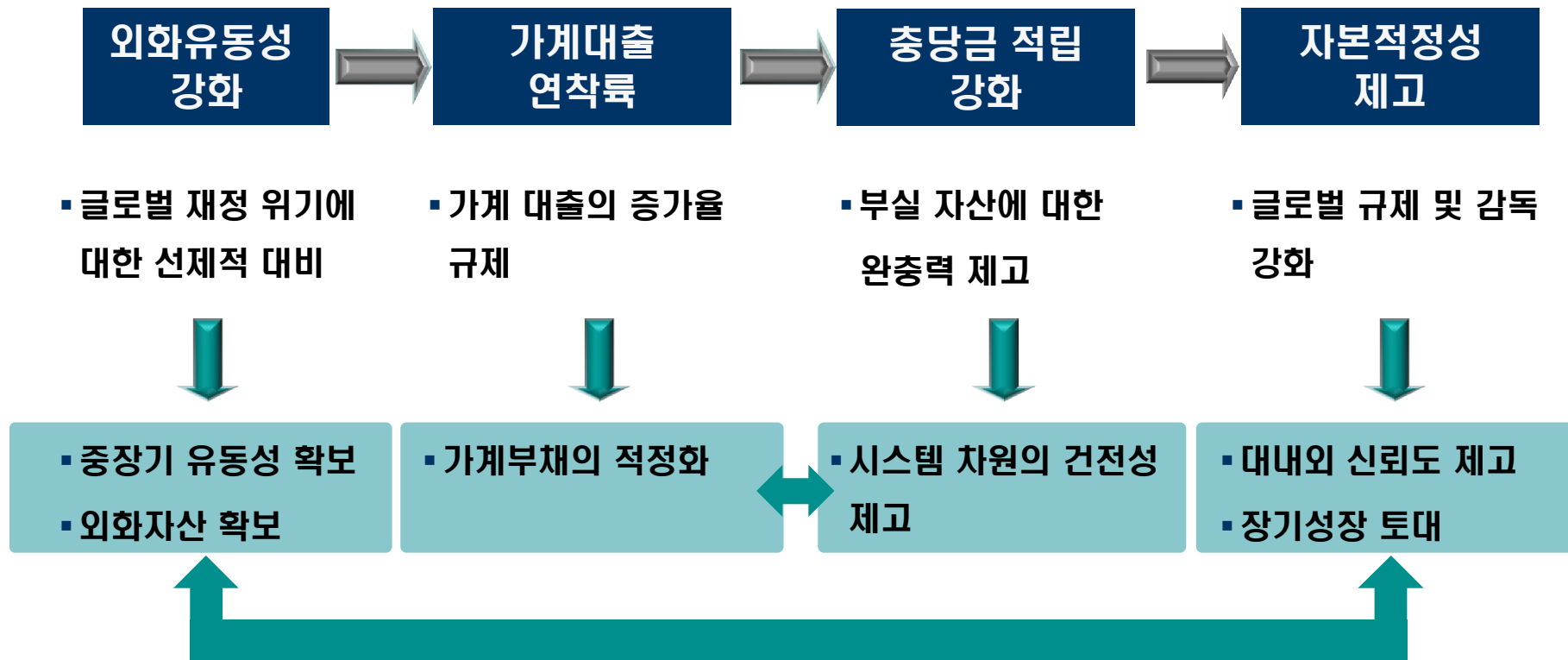
4. 수익흐름의 안정화

- ◆ 수익성은 수익흐름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영기조를 유지하되 이자수익의 조정가능성을 감안해야 함.



5. 정책기조는 안정화 및 건전성 제고 유지

- ◆ 은행권에 대한 감독정책은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시스템 차원의 건전성 제고, 안정적 성장 기조 중심으로 지속되어야 함.





◆ 향후 국내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루어진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내부역량 강화와 완충력 확보를 위한 경영기조를 지속해야 함.

- 국내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을 신속히 극복함으로써 성장성과 수익성, 자본적정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해 왔음.
- 한편 최근 재기되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채무 위기는 단기적으로 실물경제의 둔화나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축 등을 초래함으로써 은행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향후 국내 은행산업은 부채측면과 유동성 측면,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자체 완충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에 걸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전반적인 재무지표에 미칠 수 요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안정화, 손실부담 능력의 확대, 자본력의 확대, 외화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높여 나가야 할 것임.